

711
951.5
6617K
碩士學位論文

KDMT 48507346

侍講院을 통해본 仁祖·孝宗朝의
西人勢力 形成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李 成 茂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附 屬 大 學 院
韓國史專攻：李 基 淳

侍講院을 통해본 仁祖·孝宗朝의
西人勢力 形成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84. 11. 3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附 屬 大 學 院
韓國史專攻：李 基 淳

目 次

1. 序 言	1
2. 侍講院의 設置와 그 機能	4
3. 昭顯世子와 西人의 侍講院 進出	19
4. 孝宗朝에 있어서의 西人의 侍講院 進出	36
5. 結 語	59
※ 漢文抄錄	61
※ 參考文獻	63
※ 附 錄	68

1 . 序 言

17 세기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주도권이 大北에서 西人으로 넘어가고, 대외적으로 明·淸이 교체된 한국사에 있어서의 큰 전환기였다. 大北勢力에 눌려오던 西人은 光海君 15年(1623)에 反正을 일으켜 仁祖를 雍立하고 光海君과 大北勢力을 몰아냄으로써 政權을 장악하였다.

이때 西人勢力이 내세운 反正의 名分은 대체로 두가지였다. 하나는 국내문제로써 光海君의 仁穆大妃 幽閉와 永昌大君 殺害에 관한 問責이며, 다른 하나는 대외문제로써 後金에 대한 強硬策이었다. 즉, 儒教的 名分論에 비추어 볼때 光海君의 「殺弟廢母」는 三綱五倫에 배치되는 反倫理的 행위였고, 春秋大義에 비추어 볼때 後金에 대한 등거리 외교는 對明義理를 망각한 부당한 행위였기 때문에 西人의 反正은 불가피 했다는 論理였다. 仁祖反正으로 집권한 西人勢力은 光海君 정권에 대한 名分上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倫理的 政治風土의 구현과 向明排金 政策을 표방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國王과 世子에 대한 儒教教育을 강화하는 방안과, 經學에 조예가 깊은 人士를 기용하는 문제가 거론되었다.

仁祖反正을 주도한 西人勢力은 反正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功西派와 소극적이었던 淸西派로 나누어 졌는데, 이들은 현실관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대립하였다. 丙子胡亂을 겪으면서 초기에 정치적 우위를 점유했던 功西派를 대신하여 淸西派가 勢力을 확장시켜 나갔다. 淸西派는 鳳林大君의 世子册封을 계기로 하여 儒教教育과 尊明義理

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켜 나갔다. 淸西派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과 명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仁祖의 적극적인 지지를 획득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仁祖의 입장에서 이들을 기용함으로써 反正名分을 강화하고, 政局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양자를 더욱 접근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淸西派는 대체로 科擧를 외면했거나, 科擧를 통한 宦路의 진출에서 벗어난 儒林들로써 이들을 기용할 수 있는 별도의 관서나 관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당시의 侍講院은 융통성 있는 관서였으며, 贊善·進善·咨議 등의 관직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仁祖·孝宗代 淸西派의 진출과 세력기반 형성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侍講院의 기능과 侍講院 출신 관원들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王朝는 建國 初期부터 國王과 世子에게 儒敎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經筵과 書筵을 설치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經筵과 書筵에 관한 연구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으나,¹⁾ 侍講院에 대해서는 그 제도적인 연구마저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註 1) 經筵 및 侍講院에 관한 기존의 論文은 다음과 같다.

- 李元浩 : 朝鮮王朝의 世子敎育 (서울 ; 「敎育學研究」 9.2 (10), 1971)
- 金鍾律 : 朝鮮朝의 王世子敎育制度에 관한 一研究 (高麗大 敎育大學院 碩士學位 講求論文, 1981.)

이에 본고에서는 侍講院의 기능과 더불어 그것이 政治勢力과의 역학관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仁祖와 孝宗朝에 있어서 清西派의 세력기반을 구축하는데 侍講院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나를 규명하고자 한다.

-
- 李相玉 :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서울 ; 「友石大論文集」 4, 1970)
 - 李元浩 : 朝鮮王朝 經筵의 教育史的 研究 (서울 ; 「教育學研究」 12.2(8) , 1974)
 - 權延雄 : “ The Royal Lecture of Early Yi Korea : Institution, Ideology, and politics ” (서울 ;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No 50 (December, 1979) ; No 51 (June, 1980), 韓國研究院)
 - 南智大 :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 世宗 · 文宗을 中心으로 (서울 ; 「韓國史論」 6, 서울大學校 韓國史研究會, 1980, 12)
 - 權延雄 : 成宗朝의 經筵 (서울 ; 「韓國文化的 諸問題」 國際文化財團 , 1981.3)
 - 權延雄 : 世宗朝의 經筵과 儒學 (성남 ; 世宗朝文化研究(I),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 1982.12)

2. 侍講院의 設置와 그 機能

朝鮮王朝의 國王은 국가의 최고권력자요 최고명령자였으며, 이러한 國王의 권력은 世子에게 계승되었다. 그러나 朝鮮王朝가 유교국가였던만큼 이러한 國王의 권력은 儒敎理念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王道政治 구현의 주체자로서의 國王에 대한 敎育이 절실하였으며, 아울러 그 후계자인 世子에 대한 敎育 또한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世子에 대한 敎育은 侍講院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행하여 졌으며, 世子敎育은 피교육자가 王權을 계승할 자라는 점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중시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世子敎育은 장차 國王이 될 사람의 政治理念을 배양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侍講官은 世子가 즉위한 이후에 重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官僚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朝鮮初期에 있어서 侍講院이 설치된 경위와 侍講院 출신의 관원들이 어느 정도로 정치에 參與하였나를 우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朝鮮王朝 建國初期에 있어서의 世子 敎育기관의 명칭은 상고 할 수 없으나, 그 기구만은 高麗 恭讓王 2年(1390)에 개정된 東宮官制²⁾를 답습하여, 太祖 即位年(1392)의 관제 개정시에 世子官屬

註 2) 「高麗史」(서울; 景仁文化社, 1976.7) 卷 31, 志, 百官 2, 東宮官條(77; 21a, 中; 690)

의 직명과 품계 및 인원수가 책정되었고³⁾, 곧 이어 開國功臣인 趙
 竣·鄭道傳·南在·鄭摠등이 세자관속에 임명되었다.⁴⁾ 이는 世子教育
 이 접하는 정치적 비중을 고려한 太祖의 깊은 배려에서 나온 것
 이라고 보여진다. 즉, 建國 初期의 불안정한 정세하에서 世子の 향
 배가 정치 문제화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
 처였다. 朝鮮王朝의 典章을 마련하는데 깊이 관여한 鄭道傳도 그의
 저서 「朝鮮經國典」에서 “耆儒宿德한 사람과 端人正士를 택하여 세
 자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⁵⁾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太宗·定宗 년
 간의 세자교육은 王子의 亂등 불안한 정세 때문 뿐 아니라, 世子들
 이 이미 장성했던 탓으로⁶⁾ 제대로 실시될 수 없었으며 世子教育
 을 승려에게 맡겼던 관습도 남아 있던 터이라,⁷⁾ 世子官屬은 부득

註 3) 世子官屬 皆兼掌講學侍衛等事 左·右師各一正二品 左·右賓客各
 一從二品 左·右輔德各一從三品 左·右弼善各一正四品 左·右文
 學各一正五品 左·右司經各一正六品 左·右正字各一正七品 左·
 右侍直各一正八品 書吏四 八品去官 (「太祖實錄」(서울; 國史編
 纂委員會刊, 初版, 1955~1963) 卷 1, 太祖 元年 7 月 丁未條
 (1;46a · 1; 23)

註 4) 置書筵官 謂門下左侍中趙竣 判中樞院事南在 簽書中樞院事鄭摠
 其學業 皆可以備講勸之任 命爲師傅賓客而臣 亦以不敏 得忝貳師
 之職 (鄭道傳: 「朝鮮經國典」, (서울; 「朝鮮王朝法典集」 1, 景仁
 文化社 1972.10) 上, 定國本條 p. 3

註 5) 擇耆儒宿德 爲之師傅 端之正士 (同上, p. 2)

註 6) 太祖 7 年 (1398) 8 월에 世子로 冊封된 永安君 (定宗) 은 당
 시의 나이가 42 세 였으며, 定宗 2 年 (1400) 2 월에 世子로
 冊封된 靖安君 (太宗) 은 당시의 나이가 34 세이었다. (「侍講
 院志」 卷 5, 冊封條 參照)

註 7) 上欲令受學於僧 知申事朴錫命等啓曰 前朝衰季 學校陵夷 士大夫
 之子 率皆於山僧 非古制也 (「太宗實錄」 卷 2, 太宗 元年 8 月 戊
 寅條)

이 정치적 세력관계에 따라 선택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建國 初期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한 太宗朝에는 世子教育에 대한 열의가 훨씬 높아졌다. 즉, 太宗 4년(1404) 6월에 司諫院에서는

世子는 국가의 근본이다. 국가의 흥망과 치란의 관건은 世子에게 달려 있으며 世子의 좋은 초기교육과 左·右의 選官에 달려 있다. (中略) 우리 世子는 타고난 재질이 매우 훌륭하고 학문이 날로 향상되고 있으나, 師賓이 모시고 講論하는 것이 일정한 시간이 있어서 世子가 거처하는 곳에 출입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세자가) 한가할때 內豎와 더불어 놀기만 하고 학문에 힘쓰지 않는다.⁸⁾

라고 하여 世子教育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사임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兼官으로 임명하던 世子官屬을 專任官으로 바꿈으로써 世子教育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처럼 世子官屬은 世子와 생활을 같이 하다시피 해야 할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때문에 侍講官의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되었다. 太宗 18年(1418) 6월에 世子教育을 소홀히 한 侍講官의 직첩을 회수하고 그 책임을 물은 것은⁹⁾ 그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註 8) 「太宗實錄」 卷 7, 太宗 7年 6月 癸巳條

註 9) 乞將上項書筵官等 收其職牒 按律施行 以戒後來 命賓客勿論 其餘書筵官罷職(「太宗實錄」 卷 35, 太宗 18年 6月 癸未條)

世子教育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世宗朝에는 司諫院이나 吏曹에서 겸임하던 侍講官을 전임관으로 임명하는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는 특히 侍講官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어린 世子가 부끄러워 질문도 하지 못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서 世宗 13年(1431) 10月에는 侍講官을 모두 專任官으로 임명하기로 하고,¹⁰⁾ 侍講院의 관직을 輔德·弼善·文學·司經·正字로 개정하였다.¹¹⁾ 그러나 世宗 17年(1435) 7月에 侍講官의 專任官制를 폐지하고, 集賢殿 官員 10명이 侍講院 官員을 겸임하도록 다시 개정하였는데¹²⁾ 이는 侍講院과 集賢殿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集賢殿의 정치적 성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世宗은 末年에 이르러 정권을 世子에게 이양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世宗 24年(1442) 9月에는 詹事院을 신설하고 侍講院 官員으로서 詹事·同詹事를 두었다.¹³⁾ 그리

註 10) 上曰書筵官 皆以兼官爲之未便 且崔萬理朴仲林入講之時 世子頗與問難 無他 以二人侍從之日久相親故 他餘員 更日入講 俱是新面 故世子羞澁不言 以此觀之 書筵官除兼官 設祿官久任 以專其任可也 (「世宗實錄」卷 54, 世宗 13年 10月 庚申條)

註 11) 「世宗實錄」卷 54, 世宗 13年 11月 戊辰條

註 12) 吏曹啓 本朝書筵官 皆以他官兼任 其來已久 歲在辛亥冬 別立祿官 臣等參詳集賢殿書筵官 皆職在進講 其任不異 願革書筵祿官 合於集賢殿 直提學以下每品各加設一人 總三十二人 其二十二人 兼經筵 十人兼書筵 庶乎便益 從之 (「世宗實錄」卷 69, 世宗 17年 7月 庚辰條)

註 13) 議政府改定詹事院之制 啓曰 詹事一人從三品 同詹事二人正四品 以書筵官 及擇其人 器相當者兼差 班在輔德弼善之上 從之 (「世宗實錄」卷 97, 世宗 24年 9月 庚申條)

고世子가 정사의 일부를 대행함에 미처서는 侍講院 官員이 世子の 명령을 출납하는 기능도 담당하였으며,¹⁴⁾ 나아가서는 春秋官의 임무도 대행하였던 것이다.¹⁵⁾ 이에 따라 侍講院 官員은 정치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集賢殿의 정치적 성향은 世祖朝에 集賢殿이 혁파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¹⁶⁾ 이 당시의 상황은 世祖가 비록 端宗의 선양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즉위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集賢殿을 중심으로 端宗을 지지하는 세력이 온존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世祖는 集賢殿을 혁파한 것으로 생각된다. 端宗 復位를 꾀했던 사람들중에는 成三問·朴彭年·河緯地·李塏·柳誠源등 死六臣을 비롯하여 集賢殿에서 端宗이 세자였을때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⁷⁾ 이들 死六臣이 端宗의 復位運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은 文宗과 端宗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師弟關係에서 맺어진 인연과 무관하지 않았

註 14) 出納依令 依世宗朝例 自聽政日 世子命令 政院主之 侍講院會所 舉行者 本院舉行 (「侍講院志」 卷 5, 聽政條 p.135. (奎章閣圖書番號 № 907, 911))

註 15) 春坊官 竝兼春秋 聽政日當直人 入侍記事 (同上條 p.134)

註 16) 崔承熙, 集賢殿研究下. (서울; 「歷史學報」 33집) p.71 에서 集賢殿이 政治機關化되어 간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註 17) 鄭杜熙, 集賢殿 學士 研究 (전주; 「全北史學」 第 4輯). 表 1. 集賢殿學士一覽에 의하면 所謂 死六臣中에서 武臣인 兪應孚를 除外하고는 모두 集賢殿 學士였다.

을 것이다.¹⁸⁾ 世祖는 集賢殿을 혁파하기는 했지만¹⁹⁾ 世子教育의 기능만은 侍講院을 따로 두어 계속하도록 하였다.²⁰⁾ 世祖의 이러한 조처가 侍講院 官員이 端宗復位運動에 관여한 사건 직후에 바로 취해진 것으로²¹⁾ 미루어 보아, 侍講院이 政事에 관여하는 길을 막고 교육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가 내포되어 있었던 듯하다. 이상과 같이 朝鮮前期의 世子教育은 侍講院 官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大臣級에서 겸직하도록 하기도 하고, 전임관제를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世子가 王의 정무를 대행함에 미처서는 侍講院 官員이 직접 政事에 관여하기도 했던 것이다.

世子와 侍講院 官員의 사이는 師弟關係·君臣關係로 밀착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死六臣사건과 같은 殺身忠君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다. 世祖가 비록 侍講院을 別設하고 侍講院 官員의 정치참여를 막았지만 世子와 侍講院 官員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註 18) 侍講之官 實古師傅之任 是以世宗朝集賢殿學士 如成三問朴彭年金宗直輩 皆極一時之選 托以心服 契若魚水 (「孝宗實錄」卷 11, 孝宗 4年 7月 乙丑條 (11;2a·35;638))

註 19) 傳旨 吏曹曰 集賢殿副提學以下綠官革罷 直提學二員 直殿二員 依館閣例 以他官兼差 書筵綠官六員 兼官四員定額 (「世祖實錄」卷 4, 世祖 2年 6月 癸亥條)

註 20) 世祖朝 置侍講院 僚屬永爲定制 (「侍講院志」卷 1, 官職舊制條 p.3.)

註 21) 丙子之亂 唱義者 皆出於集賢殿 (「世祖實錄」卷 46, 世祖 14年 6月 庚寅條)

뿐만 아니라 文臣들의 요구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예컨대 中宗 17年(1522) 1월에 副提學 金安老가

世子에 관한 일은 大小를 막론하고 모두 師·傅·賓客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 侍講院 官員들은 교대로 숙직하면서 수시로 나아가 안부를 묻게 하고, 또한 평소에 거처할 때도 侍講院 官員과 함께 거처하도록 하자²²⁾

고 주장한 것들이 그것이다.世子는 일반적으로 8세부터 侍講院에서 교육을 받았고,²³⁾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다.

進講教材는 經書·史書·性理學書·編纂書로 대별할 수가 있다. 經書는 「法講」의 기본교재로 論語·孟子·大學·中庸·詩經·周易 등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四書는 반복해서 진강되는 경우가 많았다. 王道政治의 구현자로서의 자질을 기른다는 侍講院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儒學의 기본서인 經書를 강조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史書는 「召對」의 기본교재로 尚書·春秋·通鑑·綱目·史略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史書는 세자의 經綸을 넓혀 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文理의 신속한 터득을 위해서도 중요시 되었다.²⁴⁾ 性理

註 22) 臣等伏願 自今東宮之事 無論大小 悉關於師傅賓客 俾之更遞直宿 時以進候 且於平居優游而與之處

註 23) 「侍講院志」의 入學條와 「增補文獻備考」의 기록을 中心으로 世子の 教育이 시작된 시기의 年齡을 조사해 보면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8歲를 전후로 하여 侍講院에서 教育을 받기 시작했다.

註 24) 啓曰 世子專讀經書 故年已十七歲 未解文理 況古今治亂之跡 世子尤不可不知 須先讀史 然則文理亦易通 (「成宗實錄」 卷 261, 成宗 23年 正月 庚子條)

書는 小學·心經·近思錄·大學衍義·大學或問 등 宋代의 朱子學者들의 저서가 주종을 이루었다. 性理書가 侍講院의 교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李彦迪이 侍講院에 관여하기 시작한 中宗朝 이후의 일로써²⁵⁾ 性理學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小學」·「心經」·「近思錄」이 교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世子の 存養과 體察을 강조하는 中宗朝의 道學的 政治風土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²⁶⁾ 編纂書로는 세자교육에 맞도록 經書와 史書에서 초선한 東宮啓蒙·聖學十圖·聖學輯要·朱文抄選·孝經小學抄 등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진강교재는 侍講院 官員의 취향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다.

朝鮮前期에 어떠한 교재가 侍講院에서 사용되었는지 그 전부는 알 수 없으나 實錄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小學·四書五經·通鑑·綱目·史略·名臣言行錄·大學衍義·大學或問·心經·近思錄 등이 주로 쓰였고,²⁷⁾ 朝鮮後期에 쓰인 진강교재는 다음의 <表 1>과 같다.

註 25) 是時 人諱性理之學 書筵進講但事循例 時李彦迪淹滯芸閣 紹在天曹 力薦于朝 除說書 自此迭爲文學弼善 始以程朱諸書 竭誠啓迪 (「侍講院志」卷 2, 睿學條)

註 26) 尹南漢, 中宗代의 道學과 心學化運動 (서울; 「史叢」 21.22 合輯. 高麗大 史學會, 1977)

註 27)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서울; 「韓國史論」 9. 서울大, 1980) p.170. 위 論文에 실린 講書目錄을 書筵의 進講冊子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전재한다.

<表 1 >

朝鮮後期 侍講院 進講冊子²⁸⁾

	進 講 冊 子
孝宗東宮時	大學, 大學或問, 論語, 孟子, 中庸, 大學衍義
顯宗東宮時	小學, 通鑑, 大學, 論語, 孟子, 啓蒙
肅宗東宮時	孝經, 童蒙先習, 小學, 通鑑, 大學, 論語
景宗東宮時	孝經小學抄, 千字文, 孝經, 童蒙先習, 小學, 三綱行實, 史略, 通鑑,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傳, 書傳, 宋鑑, 心經, 大學衍義, 近思錄, 綱目, 朱文抄選
英宗東宮時	小學, 大學, 論語, 綱目
眞宗東宮時	孝經, 童蒙先習, 小學, 國朝寶鑑
景慕宮東宮時	孝經小學抄解, 小學抄略, 孝經, 童蒙先習, 小學, 史略, 通鑑, 大學, 自省編, 論語, 孟子, 中庸, 詩傳, 書傳, 宋鑑, 綱目, 周易
正宗東宮時	孝經小學抄略, 童蒙先習, 小學, 史略, 大學, 論語, 孟子, 中庸, 書傳, 宋鑑, 綱目, 朱文抄選, 聖學輯要, 朱子封事, 朱子節要
純祖東宮時	小學, 史略, 大學, 論語, 孟子, 古鏡重磨方抄
翼宗東宮時	千字文, 小學抄略, 孝經, 小學, 史略, 通鑑, 大學, 自省編, 論語, 孟子, 詩傳, 書傳, 宋鑑, 綱目, 古鏡重磨方抄, 謨訓輯要, 八字百選, 羹牆錄, 陸奏約選, 朱書百選, 國朝寶鑑
憲宗東宮時	孝經, 小學, 史略, 大學, 論語, 詩傳, 綱目, 羹牆錄, 國朝寶鑑

註 27 에서 계속

講 書 目 錄

王	講 書 名
太祖	大學衍義
定宗	貞觀政要, 大學, 論語節要, 通鑑撮要 (通鑑綱目)
太宗	大學衍義, 十八史略, 中庸, 大學或問, 禮記月令, 通鑑, 春秋, 書經
世宗	(완독) 大學衍義, 春秋胡傳, 通鑑綱目, 大學, 論語, 中庸, 孟子, 詩傳, 春秋, 左傳, 周易, 書傳, 六典, 資治通鑑續篇, 律呂

조선후기의 진강교재를 조선전기와 비교해 보면 특히 朱子書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朱子學의 보급·정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외에도 조선후기에는 童蒙先習, 國朝寶鑑, 古鏡重磨方, 羹牆錄 등 국내에서 편찬된 서적이 진강교재로 포함되었다.

侍講院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의 이외에 몇가지 방안이 시도 되었다. 우선 농업의 어려움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宮中에 水田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며,³⁰⁾ 陵幸時에 세자를 동행케 하여³¹⁾ 世子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侍講院에다가 親耕圖·無逸圖·洪範圖·聖學十圖를 그린 屏風을 배치하여 교육적인 환경

註 27 에서 계속

	新書, 性理大全, 新授六典, 宋朝名臣言行錄 (기타) 大學語錄, 禮記, 宋鑑, 直解小學
文宗	近思錄, 大學衍義, 大學, 論語, 孟子
端宗	家禮喪制, 論語, 孟子, 中庸
世祖	通鑑續編節要, 宋元節要
睿宗	禮記(喪制), 大學衍義
成宗	論語, 孟子, 國朝寶鑑, 中庸, 貞觀政要, (典範), 書經, 春秋左傳, 詩經, 通鑑綱目, 高麗史, 名臣言行錄, 大學, 禮記, 易學啓蒙, 大學衍義, 周易, 國語, 通鑑續編, 漢書, 前漢書, 資治通鑑, 吏文騰錄, 近思錄, 家語, 四傳春秋, 晉書, 性理大全, 文獻通考象緯考, 史記, 中庸或問

註 28) 「列聖朝繼講冊子次第」 藏書閣圖書 № 2-2781.

註 29) 「孝宗實錄」 卷 10, 孝宗 4 年 2 月 庚子條 (10; 25b·35; 614)

註 30) 予於大君廳北 構一室 使世子出居於此 常與士人居 俾知外事
(「增補文獻備考」 卷 225, 職官考 12 侍講院條)

註 31) 上謂右參贊宋浚吉曰 耳聞不如目見(中略) 予欲陵幸時 使世子
往見路傍民家矣(「侍講院志」 卷 3, 聖諭條 p.78)

을 조성해 주기도 하였다.³²⁾

세자교육은 강의장에서의 진강이 주가 되었다. 진강은 「日講」과 「會講」으로 구분되었고, 日講은 다시 朝講·晝講·夕講·夜對·召對 등으로 구분되고, 그 중에서 일정한 시간에 열리는 朝講·晝講·夕講을 보통「法講」이라고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夜對나 召對를 「兼講」이라고 하였다.³³⁾ 法講에서는 주로 經書를, 兼講에서는 史書를 강의하였는데, 經書의 강의를 통해서는 德性을 함양하고, 史書의 강의를 통해서는 역사상의 興亡治亂을 살펴봄으로써 國王으로서의 經綸을 쌓게하였다.³⁴⁾ 會講은 세자로 하여금 제반儀式에 익숙하게 하거나³⁵⁾ 官僚들과 상면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데³⁶⁾ 목적이 있었다.

註 32) ①古者以無逸篇作屏今亦以洪範作屏圍之左右而賢之則作聖溪徑甚明矣
(「仁祖實錄」卷1, 仁祖 元年 3月 丙辰條(1;34.33;517))

②吳百齡曰 宣廟初年儒學臣李滉撰進聖學十圖 宣廟作帖置諸座側
今亦依宣廟時事作帖以便乙覽何如 上曰洪範及此圖本欲書置于座側
而作帖不若作屏之便於觀省令玉堂書入(「仁祖實錄」卷2, 仁祖
元年 5月 乙未條(2;4a·33;531))

註 33) 「侍講院志」卷1, 講規條

註 34) 世子國本 輔導不可不謹 輔之以道 固有先後緩急之序 先之以薰陶
德性 變化成就 繼之以古今事變鑑戒治亂 其學不獨貴於博賢史傳而
已也(「中宗實錄」卷59, 中宗 22年 7年 己丑條)

註 35) 侍講院輔德崔重演上劄曰(中略) 況會講之禮 所以習其升降揖讓之
節 發其隆師敬長之心 尤不可一日或廢也(「中宗實錄」卷44, 中
宗 17年 4月 乙未條)

註 36) 乞復會講之禮 親近老成 以補聖學(「文宗實錄」卷3, 文宗 即
位年 8月 丁酉條)

강의회수는 日講의 경우는 매일 2~3회가 보통이었고,³⁷⁾ 會講은 매달 2회를 원칙으로 하였다.³⁸⁾ 진강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侍講院 官員은 服喪, 儀式, 祭禮 및 公會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었으며³⁹⁾ 會講 당일에는 侍講院 堂上官은 公會에 참석치 않고 會講에 우선 참석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기도 하였다.⁴⁰⁾

교수방법은 講義와 背誦이 주가 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는 먼저 세자가 전에 배운 음을 한번 외우고 책을 보면서 해석을 한 뒤에, 講官이 새로 배울 부분의 음을 한번 읽고, 世子가 따라서 해석을 하고, 다시 世子가 음을 읽고 해석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⁴¹⁾ 그리고 학습방법은 暗記를 위주로 하였으며, 교재에 따라서 외워야 하는 부분과 해석을 해 주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 즉, 經書의 본문은 전부 암기해야 했으며, 講官이 해석도 해 주었다. 註의 경우

註 37) 請命師傅與貳師 或五日或十日輪次進書筵(中略)季良又啓曰 臣嘗爲輔德 一日兩次進講 臣遷他官後 近來一日一次進講 請自今兩次進講(「太宗實錄」卷 32, 太宗 16年 10月 乙酉條)

註 38) ①(仁祖 3年)四月本院啓曰 會講例 行於初二日十六日(「侍講院志」卷 1, 講規條 p.43)

②「昭顯東宮日記」12冊, 奎章閣圖書 № 12821. 參照

註 39) 宮官 除服制除式暇差祭及凡公會勿參(「侍講院志」卷 6, 諸式條 p.62)

註 40) 伏願 殿下 尙留睿念 自今會講筵 非有大關事故 勿使作輟 以盡輔養之道答曰(中略) 今後講日 書筵堂上 勿參他公會可也(「中宗實錄」卷 44, 中宗 17年 4月 乙未條)

註 41) 會講時 世子誦前受音一遍 釋則臨讀一遍 講官讀新受音一遍 世子讀音一遍 講官釋一遍 世子又音釋各一遍(「侍講院志」卷 1, 講規條)

는 해석은 해주지 않고 음과 吐만을 붙여 주었다.⁴²⁾ 肅宗 39年 (1713) 重講을 하면서 기억력의 감퇴와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臨讀만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전처럼 背誦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채택된 것을 보면 經書의 背誦은 필수적이었던 것 같다.⁴³⁾ 경우에 따라서는 배운 것을 종신토록 잊지 않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多讀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⁴⁴⁾ 매일 진강하는 분량은 太宗 13年(1413)의 講學事目에 의하면 2내지 3장으로 규정되었으며,⁴⁵⁾ 明日에 배울 곳을 미리 알려주어 예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⁴⁶⁾ 예습뿐만이 아니라 복습도 중시 되었으니, 배운 것은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講官과 의문점을 토론하여 완

註 42) 讀書之法 本以成誦爲貴 然凡讀經書無竝其輯註背誦之規 但念附註 竝歸臨講則 背誦之文 恐亦涉於太略 凡讀書之功必背誦 而庶幾有 如誦己言之效 雖爲臨講 讀數必當多數問辨必當精審 唯在我春宮孜孜而加勉(同上條 p.51)

註 43) 尹德駿啓曰 世子在冲年固不可不背講 而即今春秋已近三十 纔畢講孟子 始讀中庸 而此皆重講之書 閭巷士子 年近三十則誦講之功 自不逮於丁年(中略) 右副賓客李健命 以爲臨講與背誦 其功顯別(中略) 上命仍前背講(同上條)

註 44) 果欲學而至於聖 則是豈十數讀所可責效者乎 如欲融貫浹洽 終身不忘則必準五十番爲宜(「侍講院志」卷2, 勉學條 p.78)

註 45) 書筵官 進世子講學事目一 每日平明時 世子坐堂 貳師以下 輪次進講 經史三張或二張 講至十遍 午後又十遍或五遍 且溫故至申乃罷(「太宗實錄」卷26, 太宗 13年 9月 乙酉條)

註 46) 傳子侍講院曰(中略) 今後依經筵例 明日所讀自某處至某處先書以入 則世子必考其應授之書及至受讀 必有所問於溫故知新兩便矣(「成宗實錄」卷278, 成宗 24年 閏5月 丁未條)

전히 이해한 후에 다른 것을 배우도록 하였다.⁴⁷⁾ 또한 講官의 일반적인 강의법을 지양하고 世子の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토론 학습법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⁴⁸⁾ 토론 학습법은 世子와 講官 사이에서 뿐 만이 아니라 功臣子弟들과도 함께 학습하거나,⁴⁹⁾ 童蒙訓導들과 小學을 토론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背誦의 평가를 위해서는 告牒이라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告牒이란 通·略·粗의 3 단계로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會講은 師·傅가 晝講은 賓客이 그렇지 않으면 上番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⁵⁰⁾ 英祖 23年(1747) 3월에 進講方法이 일부 변경되었다. 오전에는 經傳을 교재로 하고 진강방법은 그 전과 같이 하고, 오후에는 召對를 행하되 먼저 그날 새로 배운 經傳을 열번 읽은 후에 史書를 5번 읽으며, 停筵時에는 召對만 2번하고 오전의 소대는 관례대로 한다는 것이었다.⁵¹⁾

註 47) 臣意以爲 一日所講 必於翌日 與諸賓客侍講官等 相辨難盡通無碍 然後復講他文 以此爲式 傳曰(中略) 自今以後 不待世子問難先自辨析 使之易曉則庶乎可矣

註 48) 凡爲學之道 非但講書而已 有所疑事 相與問答 使其論難之言 熟於見聞 浹洽於心中可也(「中宗實錄」卷 81, 中宗 31年 2月壬子條)

註 49) 上曰 襄者功臣子弟 令侍學世子 其年少輩不事講讀 反生逢迎之害 自今勿與侍學 只許更日直宿(「太祖實錄」卷 3, 太祖 2年 5月辛亥條)

註 50) ①凡告牒 會講則師傅告牒 晝講則賓客告牒 否則上番告牒
②世子書筵進講時 通略粗告牒之規 雖在幼沖之日 已極未安而自上 有命宮官不敢違越(「侍講院志」卷 1, 講規條)

註 51) 晝前以經傳爲書筵而前受新受一遵其例 晝後爲召對而先讀其日新受經傳十遍後 新受史書讀五遍 若值應爲停筵之日則爲召對二次而晝前對一依書筵例(同上條 p.65)

이상과 같이 侍講院 官員들은 어린 世子와 거의 起居를 같이 하다가 피 하면서 일상생활을 지도하고, 교재를 선택·교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등으로 世子가 王位에 오르기까지 밀착된 인간관계를 지속시켜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侍講院 官員과 世子와의 관계는 君臣關係에 앞서서 師弟關係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君臣關係가 先行하는 經筵官과 王과의 관계와는 애당초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3. 昭顯世子와 西人의 侍講院 進出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世子は 王位의 계승자라는 점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특히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세자의 향배가 官僚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胡亂과 이후에 혼란된 政局에서 世子輔導를 책임지고 있는 侍講院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조선후기 전반기의 정치사의 한 단면을 고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宣祖의 뒤를 이어 即位한 光海君은 자신의 王位를 위협할 세력들을 철저히 견제하였다. 즉, 光海君 元年(1608) 4月에는 同腹兄 臨海君을 죽이고, 6年(1614) 2月에는 유일한 嫡統인 永昌大君을 죽이고, 7年(1615) 11月에는 仁祖의 동생인 綾昌君을 살해하고, 7年(1615) 4月에는 仁穆大妃를 慶運宮에 유폐시켰으며, 다시 10年(1618) 1月에는 大妃의 尊號를 박탈하고 殺害를 기도하였다.⁵²⁾ 光海君의 同氣間에 대한 지나친 견제는 王權을 공고히 하려는데 있었지만, 오히려 王位에서 물러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光海君의 이같은 행위는 儒敎의 도덕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써 오히려 仁祖反正의 名分을 제공하게 되었다.⁵³⁾ 그리고 光海君의 明과 後金사이의 中立外交政策은 慕華思想에 젖어 있던 崇明排金論者들에게는 華·夷의 구분마저 모호하게 하는 행위로서 春秋大義에 배치되는 부당한 외교정책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反正名分을 주게 되

註 52) 李相佰; 「韓國史〔近世後期篇〕」(서울; 乙酉文化社, 1981.4), pp.4~7

註 53) 使廢朝 雖有昏亂之政 但不殺同氣 不廢母后 雖以殿下之德不能有此位也 李建昌, 「黨議通略」(京城; 光文會刊) p.15

있던 것이다.

西人の 反正勢力은 光海君의 「殺弟廢母」에 대한 道德的 名分과 明나라를 背信했다는 春秋大義의 道義的 名分을 내세워 光海君과 大北勢力을 축출한 것이다. 이들 反正勢力의 핵심인물이 仁祖 元年(1623)에 錄勲된 다음表 2⁵⁴⁾의 靖社功臣들이었다.

<表 2> 仁祖 反正 靖社功臣 一覽表

	1 等	2 等	3 等
靖 社 功 臣	金 澹 李 貴	李 适 金慶徵	朴惟明 韓 嶠 宋英望
	金自點 沈器遠	申景禪 李重老	李 沆 崔來吉 申景植
	崔鳴吉 李興立	李時白 李時昉	具仁瑩 趙 滄 李厚源
	具 宏 沈命世	張 維 元斗杓	洪振道 元祐男 金元亮
	申景慎 李 曙	李 澥 申景裕	申 竣 盧守元 俞伯曾
		朴孝立 張 暉	朴 炆 洪瑞鳳 李義培
		具仁匡 張 紳	李起築 李元榮 宋時范
		沈器成	姜 得 洪孝孫 金 鍊
			柳舜翼 韓汝復 洪振文
			柳 頤

反正勢力들은 나름대로의 뚜렷한 名分을 내세워 政變에는 성공했지만, 흥흥한 민심을 안정시킬 길이 없어 부득이 南人 李元翼과 小北南以恭을 추대함으로써 鄭經世·鄭蘊·李竣·趙綱·李聖求·李光庭·

註 54) 姜敷錫; 「典故大方」(서울; 亞細亞文化社, 1975.7). pp.159~161

張顯光·金時讓등 일부의 南人과 극소수의 小北人士가 기용될 수 있었다.

仁祖 2年(1624)에는 仁城君의 治罪問題와 國婚問題로 南人 鄭經世·李竣·趙綱·陸性善·柳碩등이 功西派와 대립하였는데 反正功臣이 아닌 申欽·黃屍등은 오히려 南人에 동조하였으므로 해서 功臣계열과 분리되었던 것이니, 이들은 淸西라 불리게 되었다. 西人의 정치적 색채는 결국 功西派와 淸西派로 大分된 셈인데, 李迳의 亂後 仁祖 3年(1625)에는 南以恭·李景稷의 人事問題로 이른바 老西派(金瑬·金尙容·申欽·吳允謙·金尙憲·金慶徵등)와 少西派(李貴朴·羅萬甲·張維·姜碩期·李基祚·鄭弘溟·兪伯曾·權壽등)로 분과 대립이 발생되기도 하였다.⁵⁵⁾

光海君을 政變으로 몰아내고 새로이 政權을 잡은 西人들은 자신들의 行위를 合理化시키는 일이 선결과제였던 것이다. 이에 西人들은 光海君 政權을 「殺弟廢母」를 자행한 反倫理的 集團으로 규정하였다. 光海君 政權의 反倫理的 行위는 君主가 儒教的 德治主義의 학습을 게을리 한데서 기인하므로,⁵⁶⁾ 經筵을 자주 여는 것만이 廢政을 시정할 수 있는 첩경이라,⁵⁷⁾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儒教的

註 55) 姜周鎭; 「李朝黨爭史研究」(서울; 서울大 出版部, 1972)
pp.96 ~ 101

註 56) 李德洞曰 古之帝王 雖在航海之時 猶講大學以論治道 今當臨御之初日 御經筵類接賢士 講論朝廷得失國家治亂 此是急務 向使廢君引接臣僚 廣詢治道則 爾瞻 雖極姦巧 焉能惑亂 至此哉(「仁祖實錄」卷1, 仁祖 元年 3月 乙巳條(1;10a.33;505))

註 57) 吳翹曰 人主學問高明則 宮掖肅淸清女謁自絕 頻數開筵咨訪不怠則 弊政自祛矣(「仁祖實錄」卷1, 仁祖 元年 3月 丙辰條(1;33b.33;517))

政治思想에서는 王權은 天命思想에 의하여 正當性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즉, 天命은 군주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正當할 때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요, 道德的 正當性을 상실하게 되면 天命도 상실하게 된다.⁵⁸⁾ 는 뜻이다. 이러한 天命思想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政變을 反正이라는 名分으로 合理化하기 위해서 光海君의 倫理的 타락을 공격하였다. 前代의 倫理的 타락을 공격한 西人勢力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政治의 倫理性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西人勢力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道德을 숭상하고 文教를 진흥하는 데에서 찾으려고 했었다.⁵⁹⁾ 이런 사고는 儒敎의 德治主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써, 사회문제의 해결을 倫理意識의 提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儒敎의 정치관에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法律로써 강요하거나 행정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行政과 法律로써 보다도 道德으로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禮에 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연히 질서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하는 것⁶⁰⁾ 을 이상적인 상태로 보았던 것이다. 仁祖가 즉위한후 곧 바로 儒敎의 崇信을 국정의 기본목표

註 58) 惟命不于常 道善則得之 不善則失之矣 (「經書」(서울;大同文化研究院刊) 中庸)

註 59) 檢討官趙希逸曰 …… 光海時 崇信妖術 異端竝起 終至顛覆 今若尙道德 修文教則 舊染汚俗 可以變革矣 (「仁祖實錄」卷 1, 仁祖 元年 4 月 壬戌條 (1;39b.33;520))

註 60)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經書」(서울;大同文化研究院刊) 論語 爲政篇)

로 삼으려고 한 것⁶¹⁾도 바로 政治의 倫理性을 강조함에 따라서
 자연히 權力의 핵심인 국왕에 대한 儒敎敎育의 필요성이 강조되었
 다. 領議政 李元翼은 經筵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聖學이 고명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經筵을 자주 열지 않는
 다면 善言은 반영될 수가 없을 것이고, 人材도 분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中略) 옛날의 임금들이 비록 전쟁중이라도 講
 學을 중단하지 않은 까닭은 진실로 이 때문이다. 殿下께서 부
 지런히 修身을 하셨으니 政治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
 가? ⁶²⁾

國王에 대한 儒敎敎育의 필요성이 仁祖反正 직후에 크게 거론된
 까닭은 儒敎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道學的 至治主義와 관련시
 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문제의 해결을 社會構造의 개선이라는 측
 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儒敎倫理의 高揚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려
 는 것이 道學的 至治主義의 목표였다. 즉, 정치사회에서의 사회악
 또는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사회구성원의 도덕적 타락으로 부터 온
 다고 보고 이의 해결은 주로 인간의 주관적이며 내면적·도덕적

註 61) 上下敎曰 國家 若不崇信儒道 何以爲國乎 予在閔邸 聞張顯光朴
 知誠 皆以老成宿儒 久居林下 敬慕之心 未嘗少弛于中 今在何處
 予欲共議國事 其以駕驕召來 此外林下宿德之士 廣求以啓 (「仁祖
 實錄」卷 1, 仁祖 元年 4 月 壬申條 (1;48b.33;524))

註 62) 元翼曰 (中略) 聖學雖已高明 若不頻數開筵則 善言無由而至 人材
 何而辨 至於民間疾苦國家刑政 莫不講論於一席 故古之人君 雖在
 干戈搶攘之中 不廢講學者 良以此也 殿下孜孜不怠 既清本源之地
 則 於爲國乎何有 (「仁祖實錄」卷 1, 仁祖 元年 3 月 壬子條
 (1;25b.33;513))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⁶³⁾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인간 개개인의 도덕적 修身이 필수조건으로 될 뿐아니라, 최고 권력자인 국왕의 修身이 강조되게 마련이었다. 국왕의 修身이 요구된다면 자연히 그 후계자인 世子의 修身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仁祖 元年(1623) 1月에는 元子에 대한 輔養은 世子로 冊封되기 이전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禮曹의 건의에 따라 西人 吳允謙·李廷龜·鄭曄과 南人 鄭經世를 輔養官으로 삼고 西人 金長生과 南人 張顯光을 僚屬으로 삼아 世子教育을 강화하였다.⁶⁴⁾ 이들은 당시에 학문으로 명망이 높던 사람들로써 黨色이나 科擧及弟 여부에 관계없이 골고루 기용되었다. 이처럼 각 파벌을 골고루 輔養官으로 기용한 것은 人物本位로 侍講官을 임명하여 元子교육의 질을 높이고 反正名分인 도덕적 정치 풍토의 구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하겠다.

仁祖 2年(1624) 6月에 大司諫 張維는

國家의 근본은 세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世子輔導의 방법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臣이 듣기로는 元子の 자질은 영민하고 행동이 범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就學이 조금만 늦어지면 교육과정에 익숙치 못하며, 元子는 經傳의 뜻

註 63) 朴忠錫; 『조선조의 유교정치체제와 주자학사상』(서울; 『조선조의 정치사상』, 平和出版社) 1980.5. p.30.

註 64) 禮曹 以元子雖未冊封 不可無輔養之事 請議大臣 大臣請倣 祖宗朝故事行之 遂考出歷朝實錄則 太宗中宗明宗三朝 明有可據之規 於是 以吳允謙李廷龜鄭曄鄭經世爲輔養官 金長生張顯光爲僚屬 (『仁祖實錄』 卷2, 仁祖 元年 5月 丙申條 (2;7a.33;532 下))

과 義理의 즐거움을 깊이 알고 좋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책 읽는 것을 짜증스럽게 여기고 외운 것도 금방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中略) 元子の 나이가 열셋이니, 일반백성의 자제라도 또한 학문에 뜻을 들 나이인데 하물며 世子の 지위에 있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후일의 책임이 教導가 소홀한 것보다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65)

라고 세자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8세가 되면 정규교육을 시작하는 전통적 유학교육과정⁶⁶⁾에 비추어 볼때 13세에 이르도록 체계적인 教育課程이 미비되었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도덕적 정치풍토의 구현을 국정의 기본목표로 삼은 仁祖정권에게는 侍講院의 구성은 시급한 정치적 현안이었던 것이다. 儒臣들의 입장에서 볼때 國王이나 世子에 대한 儒教教育은 儒教的 理想政治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이다.

仁祖 2年(1624) 8월에 李植은

옛날의 道統은 人君들이 이어서 전했는데, 周公이 사망한 이후로는 道統이 人君에게 전해지지 않고, 단지 下位의 사람들에게

註 65) 大司諫張維等曰 國家大本 係於儲嗣 教導之方 最爲切急 竊聞元子姿質英發 動止不凡 但以就學稍晚 功程未熟 其於經傳之旨 義理之樂 未能深知而 篤好故讀習未免厭倦 誦念或至遺忘 (中略) 伏念元子春秋十有三歲 閱卷童子 亦知向學 況在元良之地 他日責任何等關重而教導之具 疏濶 (「仁祖實錄」 卷 6, 仁祖 2年 5月 乙丑條 (6;6b·33;617))

註 66) 禮曹判書沈宅賢言 東宮八歲入學 自是古例 (「英祖實錄」 卷 9, 英祖 2年 4月 癸未條 (9;35a·41;590))

게 전해 졌다. 이 때문에 小民이 혜택을 입는 것이 드물어졌다.⁶⁷

고 주장하였다. 國王은 王統의 계승자이기에 앞서서 儒敎의 道統의 계승자이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國王이 儒敎理念의 실천자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國王이 儒敎理念의 실천자이어야 한다고 한 것은 王權의 행사가 儒敎的 價値基準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道學政治論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당시에 있어서 儒敎的 王道政治에서 벗어난 光海君과 大北勢力을 제거한 西人勢力은 자신들의 反正名分을 확립하기 위해서 道學政治의 실천방안으로 부심하고 있었다. 道學政治의 구현은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책무이기는 하지만, 특히 國王과 世子가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때문에 그들의 책무가 더욱 컸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仁祖 3年(1625)에는 그동안 이루어왔던 世子册封과 侍講院 設立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侍講院 官員의 인선은 私情에 치우친 불공정한 人事라는 지적이 있었다. 仁祖의 姻戚인 西人 李植·鄭百昌·韓興一을 輔德·弼善·說書로 기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國王의 姻戚을 侍講院 官員으로 임명한 것은 외척이 정치에 간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써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비난을

註 67) 李植曰古之道統 必自人君 相繼而傳 周公沒後 道統不傳於人君 只在於在下之人 以此 小民之蒙澤 亦已鮮矣 (「仁祖實錄」 卷 6, 仁祖 2年 8月 辛卯條 (6; 42b~43a·33; 635 上~下))

받았다.⁶⁸⁾ 儒臣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仁祖가 자신의 인척을 그대로 임명한 것은 李适의 亂을 겪은 불안한 정세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즉, 世子の 주위에 인척을 포진시켜 농음으로써 世子가 다른 세력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다.

政治의 倫理的 측면을 중요시하는 道學政治의 구현은 위정자 모두에게 부여된 공통의 책무로써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儒學에 정통한 人士를 정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즉 전대의 光海君 정권에 반대하여 仕宦을 외면하고 在野에 은거하면서 학문에만 진력하던 儒學者들에게 정치참여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仁祖는 그의 元年(1623) 3월에 재야의 명망이 있는 儒學者들을 초치하여 관직에 특채할 것을 명령하였고,⁶⁹⁾ 앞서 輔養官으로 천거되었던 西人 金長生·朴知誠와 南人 張顯光을 成均館의 司業으로 기용하였다.⁷⁰⁾ 이들의 기용은 在野 儒學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여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科擧를 통하지 않고도 高級官僚가 될 수 있는 기

註 68) 李植爲輔德 鄭百昌爲弼善(中略) 植之妻 上之兩姨姊妹也 百昌之妻 中殿之姊也 吏曹初以他人擬輔德望 則上命改望 故李植追擬而受點 吏曹又以他人擬弼善則 上命改望曰 以玉堂西壁中 職次相當人擬望 蓋百昌時爲弘文館副校理故也 待教韓興一亦以副望爲說書興一即中殿從父兄也 識者見而憂之曰 自古偏昵內族者 鮮不亡其國 主上乃於元子新册之時 必欲以椒親爲春坊輔導之官 則是主上先示偏私之意於冲年之主也 安知外戚預政之漸 自此始耶(「仁祖實錄」卷 8, 仁祖 3年正月 戊午條(8;5a.b·33;669下))

註 69) 註 61 과 同一

註 70) 置成均館司業三員 以金長生張顯光朴知誠爲之(「仁祖實錄」卷 2, 仁祖 元年 5月 丁巳條(2;13b·33;535))

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때 在野 儒學者들에게 제수한 관직은 별다른 실권이 없는 禮遇職이었으며, 그 규모도 소폭에 그쳤으므로 정치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진출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성숙하기를 기다려야만 하였다.

西人政權의 春秋大義만을 앞세운 名分 위주의 외교정책은 淸의 무력침략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仁祖 14年(1636) 12月에 丙子胡亂이 일어나고 仁祖가 南漢山城에서 항복하는 치욕을 당하였다. 이때 淸은 조선정부의 외교노선을 변경할 것을 강요하였다. 西人政權은 무력에 눌러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지만, 淸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西人政權이 내세웠던 反正名分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淸은 朝鮮政府에 대하여 征明軍의 파견을 요구함으로써 西人政府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仁祖 17年(1639)에 淸의 征明軍 파병요구에 대하여 朝鮮政府는 左議政 崔鳴吉을 瀋陽에 파견하여 “國內가 공허하여 人民이 疑懼한다”⁷¹⁾는 이유를 들어 淸을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仁祖 17年(1639) 12月에 金尙憲은

淸과의 講和는 무력에 굴복하여 일시적으로 취한 방편일 뿐 反正의 大義名分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淸의 파병요구에 응한

註 71) 李相佰; 「韓國史〔近世後期篇〕」 p.108.

다는 것은 흡사 원수를 도와서 부모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⁷²⁾

고 하였다. 그러나, 淸은 朝鮮政府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講和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 하여 反淸輿論의 주모자인 金尙憲을 瀋陽으로 압송하였다.⁷³⁾ 그리하여 다음해인 仁祖 18年(1640)에는 淸의 강요에 의하여 林慶業을 비롯한 6천명의 征明軍을 파견하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인 전투끝에 그 일부는 明에 투항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西人政權은 겉으로는 淸의 파병요구에 응하면서, 뒤로는 親明政策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仁祖 20年(1642) 10月에는 崔鳴吉마저 明에 밀사를 파견한 죄과로 瀋陽에 구금되기에 이르렀다.⁷⁴⁾ 강력한 反淸論者인 金尙憲이 淸의 제재를 받은 것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지만, 主和派인 崔鳴吉마저도 親明政策때문에 淸의 제재를 받을 정도로 당시의 국내상황은 反淸의 기운이 압도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仁祖反正의 名分을 고수하려는 西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淸은 反淸人士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人質로 잡혀 있던 昭顯世子에게 朝鮮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도록 독

註 72) 前判書金尙憲上疏曰(中略)近日又聞道路言 朝廷從北使之言 將發兵五千 助瀋陽犯大明(中略)有復於殿下者曰 人有助寇讎攻父母 殿下必命有司治之 其人雖善辭以自解 殿下必加以王法 此天下之通道也(「仁祖實錄」卷39, 仁祖 17年 12月 戊申條(29;25b-35;75))

註 73) 金龍德; 昭顯世子研究(서울; 「史學研究」 第18號, 韓國史學會, 1964.9.10) p.443.

註 74) 同上 p.444

려하였다. 이에 侍講院은 世子教育 이외에도 本國政府와의 연락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侍講院은 本國使行의 應接, 質子의 交替, 贖還問題, 貿易業務 및 征明軍의 징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⁷⁵⁾ 淸은 제반업무의 처리과정에서 世子的 보다 많은 재량권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世子的 親淸的인 태도로의 선회와 더불어 仁祖로 하여금 淸의 저의가 만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였다.⁷⁶⁾ 이러한 상황에서 仁祖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世子的 행동에 제동을 걸거나, 國內의 反淸的 분위기에 편승하므로써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仁祖는 世子的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瀋陽館所에 보내는 물량을 엄격히 제한하거나,⁷⁷⁾ 世子가 꺼리는 內官을 파견하여 世子的 행동을 감시하도록 하고,⁷⁸⁾ 侍講院 官員을 소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仁祖와 世子的 갈등은 侍講院의 근무여건을 더욱 악화 시킴으로써 侍講院 官員의 파견이 정치문제화하는 경우까지 생겨나

註 75) 同上 p.445.

註 76) 上曰 淸人之要予入朝 自前汗時已然 而予以病爲解 故彼不強之矣 今聞 九王年少剛腹 其意何可測也 前則待世子太薄 而今乃太厚云 予不能無疑焉 (「仁祖實錄」卷 44, 仁祖 21年 10月 辛未條)

註 77) 請將本曹銀二千兩 管餉銀三千兩 急急入送 答曰 老米雖惡 依瀋陽初到時食之可也 不必到今別出無前之規 至是備局 請依戶曹啓辭 添送銀五千兩 世子行中答曰 今年所送 柴饌等價及別銀蔘 不爲不多 淸國所爲 亦不可不察 姑勿入送可也 (「仁祖實錄」卷 45, 仁祖 22年 7月 辛丑條)

註 78) 王世子及嬪 還入瀋陽 命宦官金彥謙 陪世子入瀋陽 彥謙曾侍世子于瀋館 世子如有過舉 則涕泣苦諫 雖遭捶楚 猶不少止 世子深加忌憚 故有是命 (「仁祖實錄」卷 45, 仁祖 22年 2月 戊寅條)

게 되었다.

仁祖 18年(1640)3月에 司諫院은

東宮을 輔導하는 것은 선무로써 三公이 師·傅·貳師를 겸임하고 賓客으로부터 堂下 宮僚에 이르기까지 一時에 極選, 公議에 따라 擇差하는 뜻은 우연이 아닌데, 세자가 瀋陽에 간 이후 賓客에게만 의존하게 되어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吏曹가 才學이 넉넉하고 位望이 顯達한 자를 差送한 후에라야 公道를 펼 수 있을 것인데, 淸望에 淸通된 적도, 實職을 지낸 적도 없는 자들을 잡다히 擬望하여 苟且히 채운다는 비난을 일으킵니다. 館所가 비록 樂土가 아니지만 分義가 존재하는 곳인데 누군들 가지 아니 하리오 마는 前後의 差遣者들이 모두 싫어하니 그때의 의론이 있는 자들과 세력이 있는 자들은 백방으로 모면하여 注擬된 적이 없습니다.⁷⁹⁾

고 하였다. 이처럼 侍講院은 근무여건이 바뀐에 따라서 사람들이 差遣되기를 꺼리는 관서가 되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관료들이 侍講院 官員으로 임명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부적합자가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즉, 副賓客 金南重은 獨子이면서 노모가 있는데

註 79) 正言沈澤啓曰 輔導東宮 有國先務 三公例兼師傅貳師 賓客以至堂下宮僚 皆以一時極選 從公議而擇差 意非偶然 世子入瀋之後 專倚賓客 責任尤重 爲銓曹者 必以才學俱優位望極顯者差送 然後公道可伸 而從未通淸望 未經實職者 雜然竝擬 以致苟充之譏 館所雖非樂土 分義所在 誰不可往 而前後差遣 率多見忤 時議之人 稍有勢力者 百端謀免 未及注擬 (「仁祖實錄」卷 40, 仁祖 18年 3月 庚寅條)

도 자출되었으며,⁸⁰⁾ 70 세에 가까운 사람이 賓客으로 擬望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⁸¹⁾ 더욱이 瀋陽의 侍講院 官員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淸나라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신규임명자를 선택하는 더욱 까다로웠다. 淸의 기피인물이라는 이유때문에 李景奭이 貳師로 취임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⁸²⁾

侍講院의 운영을 곤란하게 했던 仁祖와 昭顯世子와의 갈등은 지금까지 夷賊視하여 왔던 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現實 認識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즉, 昭顯世子는 淸國을 비교적 정확히 認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淸이란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어 간 반면에, 崇淸排淸의 名分에 매달려 있던 仁祖는 淸이란 존재는 부정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인 갈등이었던 것이다. 西人政權에 의한 反淸意識은 淸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화되어 갔다. 仁祖 22年(1644) 3月에는 仁祖反正의 1등공신이자 現職左議政인 沈器遠의 역모가 발생했는데 沈器遠은 丁丑約條가 皇

註 80) 右副賓客金南重上疏曰 臣既承賓客之命(中略)而父母年皆七十 俱有疾病 而老父則若將頃刻殞命者然 臣以獨子 日夜扶護 不忍離發 (「仁祖實錄」卷 43, 仁祖 20年 12月 辛未條)

註 81) 命勿以年近七十之人 擬差賓客之任 (「仁祖實錄」卷 45, 仁祖 22年 7月 癸卯條)

註 82) 以李景奭復爲元孫輔養官 景奭 時望最重 曾帶此任 及爲貳師 爲淸人所惡 久在散班 至是復兼之 (「仁祖實錄」卷 46, 仁祖 23年 2月 己未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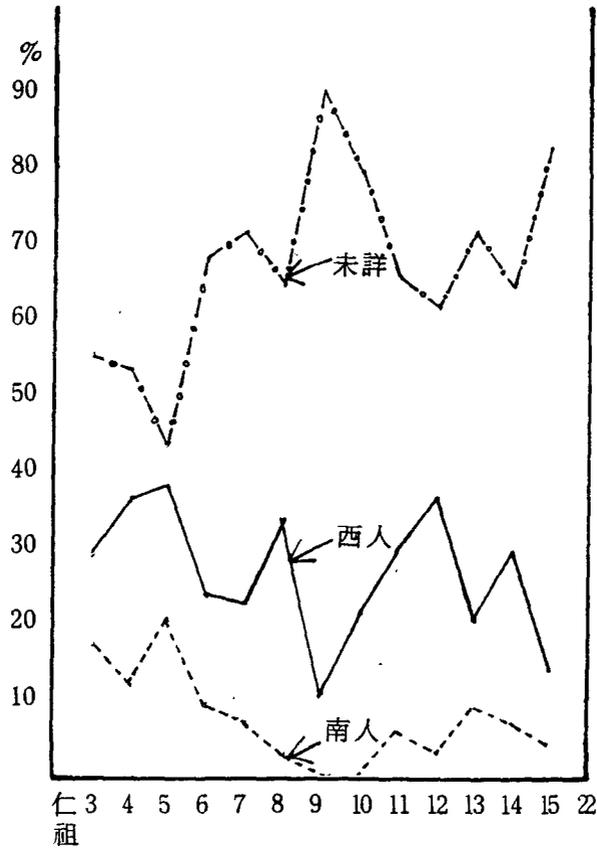
明에得罪한 것이기 때문에 尊明大義를 위하여 仁祖에게 양위를 강요하고, 家財를 기우려 모병을 하여 연약한 文臣들을 살해하고, 淸國과의 수치스러운 관계를 끊으려 했다고 供述하였다.⁸³⁾ 이때의 時代狀況은 現職左議政이 仁祖의 對淸態度가 미온적이라는 名分을 내세워 역모를 획책할 정도로 反淸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反淸意識은 이후의 侍講院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仁祖 元年(1623)에 昭顯世子の 輔養官으로 西人인 吳允謙·李廷龜·鄭曄과 南人인 鄭經世를 채용하고 그 僚屬으로 西人 金長生과 南人 張顯光을 임명한 것은 전술한 바이지만 世子教育에 西人과 南人學者를 기용한 사례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였던 것 같다. 仁祖 3年(1625)에 侍講院이 개설된 뒤 同王 15年(1637)에 瀋陽으로 移設하였다가 同王 23年(1645)에 還都하는 과정에서 侍講院 官員으로 진출한 人物의 黨色관계는 <부록 1>과 같다. 이 <부록 1>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우선 侍講院 官員의 黨色분포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圖示하면 다음의 <表 3>과 같다.

註 83) 主上反正之後 多有過學 吾常欲推以爲上王 傳位于世子 趙公淑亦有此意 未果而死矣 丙子以後 得罪於天下 吾每恥之 爲傾家財 辦銀數千餘兩 募得力士推心見誠 區區所願 專在扶植綱常 頃者世子出來時 非不欲脅上傳位 而雖奉世子 亦知無可爲 茲不爲之矣 (「仁祖實錄」卷 45, 仁祖 22年 3月 己酉條)

註 84) 註 64와 同一

<表 3> 仁祖 3 年 ~ 22 年 侍講院 官員 黨色 分布 圖



위 表에서 黨色이 확실한 자만 볼때 西人이 30% 前後인데 비하여 南人은 10%를 오르내리는 정도이다. 이러한 西人과 南人의 비율은 당색을 밝히지 못한 여타 인원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 시기 侍講院 官員의 移拜實態를 분석하면 다음의 <表 4>와 같다.

<表 4> 仁祖 3 年~ 22 年 侍講院 官員 移拜官職 分析表

관서 \ 년도	仁祖													누계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2			
議政府	1	1	1			1	1		1		2				8	3.3
侍講院	7		3	3	1	4				1	2				21	8.7
承政院	1			2	1						1				5	2.1
司諫院	3	5	12	8	8	2	7		17		14	2			78	32.2
司憲府	4	1	19	9	7	6	4		13		8	1			72	29.8
弘文館	2		8	3	1	1	3		4		5				27	11.1
銓郎	2		1	1	1		1		1		2				9	3.7
成均館	1				1				1		1	1			5	2.1
藝文館	1		1	1			1		2						6	2.5
地方館	1				1	1	2		1		1	1			8	3.3
기타			2						1						3	1.2
計	23	7	47	27	21	15	19		42		36	4	1		242	100

위 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侍講院 官員의 2 / 3 가량이 三司의 官員이나 銓郎으로 이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통하여 당시 侍講院職은 거의 西人이 독점하다시피 하였고, 이들 西人의 侍講員 官員들은 다시 三司나 銓曹로 轉補되어 人事權과 言路를 장악하므로써 그들의 세력기반을 확고히 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孝宗朝에 있어서의 西人의 侍講院進出

大陸의 정세가 안정되자 淸은 昭顯世子和 金尙憲·崔鳴吉·李敬輿 등의 귀국을 허용했다. 昭顯世子は 귀국한 직후에 사망했으며 이를 계기로 後繼者를 누구로 할 것이며, 世子の 教育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仁祖 23年 (1645) 5월에 持平 宋浚吉은

元孫을 조속히 世孫으로 冊封하고, 孤忠大節로 華夷觀念을 高揚시켜서 一世의 重望을 한 몸에 받고 있는 金尙憲을 招致하여 賓師의 職에 두고 宿德한 사람을 널리 구하여 世孫을 맡긴다면 今 日의 人心이 스스로 안정될 것입니다.⁸⁵⁾

라고 상소하였다. 宋浚吉은 世孫을 조속히 冊封하고, 孤忠大節로서 士類의 崇仰을 받고 있는 金尙憲을 등용하는 것이 政局 安定의 첩경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仁祖는 元孫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 生母인 世子嬪 姜氏에게 罪過가 있다는 이유로 同年 六月

註 85) 持平宋浚吉上疏曰(中略) 臣愚以爲 元孫教養之方 不可不慎 補導之人 不可不擇 臣未知殿下之朝廷 可以托六尺之孤者誰耶 前判書 金尙憲精忠直節 聳動華夷負一世之重望 爲國人之矜式 求之前史 亦所罕有 臣愚以爲 欲擇其人 舍此無他(中略) 則不但今日人心自定 又安知異時立大經建大業 不爲根柢於此乎(「仁祖實錄」卷 46, 仁祖 23年 5月 辛丑條(46;35a · 35;222))

에 第2子 鳳林大君을 世子로 册封하였다.⁸⁶⁾ 鳳林大君의 世子册封을 계기로 다시 世子教育에 대한 論議가 활발하여졌다. 仁祖 23年(1645) 11월에 西人인 右議政 李景奭은

古人으로서 政治를 말하는 자는 太子를 教育시키는 것으로 근본을 삼지 않은 적이 없다. (中略) 이러한 때를 당하여, 만약에 草野의 賢者를 招致하여 師友로 삼지 않는다면 教養이 疏略하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金集은 一生을 性理學에 침잠하였고, 宋時烈, 宋浚吉도 學行으로 저명한 자가 오래 되었으니 이들을 招致하여 侍講院 官員에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⁸⁷⁾

고 하였다. 仁祖는 世子教育을 活性化 시키기 위해서 西人の 金集·宋時烈등을 招致하려고 하였으나,⁸⁸⁾ 그들은 부름에 응하지 않았고, 副護軍 金集은

侍講院 官員을 이미 최상으로 선택하여 기대가 큰데, 거기에다가 草野人士를 招致하여 世子教育을 돕게 하려는 뜻은 매우 훌륭하다. (中略) 今日의 學·不學이 앞날의 治亂의 관건이 된다는 古人의 말을 世子를 위하여 올린다.⁸⁹⁾

註 86) 上曰 非徒疾病如此 國事日陷於難危 脫有不諱 幼冲之主 恐不能擔當大器 予欲於大君中擇立爾 「仁祖實錄」卷 46, 仁祖 23年 閏 6月 壬午條 (46; 49 a· 35; 229)

註 87) 古人言治者 莫不以教養太子爲本 (中略) 當此之際 若不旁招草野之賢 爲之師友則其於教養之具 恐爲疎略之歸也 金集 一生沈潛於性理之學 宋浚吉宋時烈 亦以學行著名久矣 (「仁祖實錄」卷 46, 仁祖 23年 10月 丁亥條 (46; 77b· 35; 243))

註 88) 「仁祖實錄」卷 46, 仁祖 23年 10月 丁亥條 (46; 78b· 35; 244)

라는 사직소를 올렸다. 金集은 비록 자신이 나이와 건강때문에 世子輔導의 직책을 수락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草野人士를 초빙하려고 하는 뜻만은 적극 지지한다고 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西人인 前知中樞府事 趙翼은

“王世子가 이미 冊封되었으니 마땅히 聖賢의 學問을 배워서 마음이 추구하는 바가 옛날의 帝王(堯·舜·禹)과 같도록 할 것입니다. (中略) 聖學의 要體는 人心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中略) (이를 위하여) 侍講院 官員은 官職의 高下 草野人士의 여부에 구애받지 말고, 經學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⁹⁰⁾

고 주장하였다. 趙翼도 李景奭과 마찬가지로 侍講院 官員으로 草野人士를 대거 기용해야 할 필요성을 力說한 것이다. 이 시기에 侍講院 官員의 人事문제가 중대한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새로운 世子가 冊封된 직후라는 점과 西人이 侍講院 官職을 독점하려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사실 侍講院 官員의 임명은 教育的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仁祖의 이 당시 나이가 50세를 넘어섰고, 오랫동안

註 89) 副護軍金集上疏辭召命曰(中略) 臣竊惟元良正位 四方延頸 進德修業 一日爲急 宵旰賓僚 既極時望 而猶且招野 欲資啓沃 意甚誠也 (中略) 古人所謂今日之學與不學 係他日之治亂者 竊爲儲君獻焉 (「仁祖實錄」卷 46, 仁祖 23年 11月 甲寅條(46;87b·35;248))

註 90) 前知中樞府事趙翼上疏曰(中略) 伏惟王世子既當儲嗣之位 宜講聖賢之學 使其心志事爲 一如古之帝王 此乃第一等也 謹按經傳所載聖人所言爲學之才 唯舜禹授受危微精一之言 最爲首出(中略) 極選春坊進講之官 不拘職秩高下 及草野之人 苟有經學者 皆取之以備講官列(「仁祖實錄」卷 46, 仁祖 23年 11月 丙辰條)

동안 病苦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⁹¹⁾ 仁祖 死後 政權의 向背와도 관련이 되는 문제로서 侍講院 官員의 임명을 거론했던 西人에서는 이른바 草野人士들인 清西派人士들의 招致에 급급하였다. 清西派의 人士들은 모두 對淸問題에 있어서 강경한 反淸論을 名分으로 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對淸關係를 감안한다면 反淸論者들을 대거 기용한다는 것은 外交問題를 일으킬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으며⁹²⁾ '거기에다 功西勢力의 反撥도 예상되는 중요한 정치문제 였던 것이다. 그러나 清西派의 草野人士를 侍講院 官員으로 기용하라는 강한 여론은 仁祖로 하여금 政策的 轉換의 必要性을 느끼게 했던 듯하다. 仁祖 23年(1645) 11月에 仁祖는 右議政 李景奭에게

내가 듣전데 '大臣은 사람으로써 임금을 섬긴다' 했으니, 卿은 어진이를 천거하도록 하라. 옛날부터 臣下된 자들 中에서는 몸소 큰 일을 하거나 절개를 지키고 義에 죽은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名望이 있는 사람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草野에 疏遠한 곳이나, 鄉黨이 천히 여기고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에

註 91) 上謂諸臣曰 予有宿疾 徃徃而劇 元孫如彼其微弱 予觀今日之形勢 不可以待小兒之成長 未知卿等之意以爲何如 (「仁祖實錄」卷 46, 仁祖 23年 閏6月 壬午條(46;49a·35;229))

註 92) 左議政金尙憲再疏略曰 臣詳聞國書中有曰 閱聖徽等四人 因世子求用 姑允所請其餘仍不許叙用 所謂其餘 臣在其中 其信不啻不明 今若一體收用 則日後致責必無少寬也 (「仁祖實錄」卷 47, 仁祖 24年 4月 辛巳條(47;35a·35;229))

서 나오는 법이다.⁹³⁾

라고 하여 新進人士의 추천을 의뢰하였다. 仁祖가 이처럼 淸西派人士의 起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功西派 中心으로 운용해 오던 政局의 安定이 時代的 여건의 變化로 인하여 어려워졌기 때문인 듯하다. 仁祖 23年(1645) 12月에는 功西派의 領袖인 領議政 金堧가 權奸이라는 공격에 따라서 사직소를 올릴 정도로 功西派에 대한 淸西派의 비판이 활발해졌다.⁹⁴⁾ 功西는 仁祖의 反正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勢力으로서 仁祖執權 初期부터 政府의 要職을 點有하고 있었는데, 淸西派人士들의 공격으로 점점 守勢에 물리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金尙憲·金集·宋時烈등의 淸西勢力은 서서히 政治的 地位를 上昇시켜가고 있었다.

仁祖 24年(1646) 2月에 仁祖는 다시 金集에게 東官의 轉導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金集은 계속 이를 사양하였다.⁹⁵⁾ 金尙憲도 左議政을 맡아 달라는 仁祖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였다.⁹⁶⁾

註 93) 上謂 右議政李景奭曰 予聞大臣 以人事君 卿其薦賢可乎 自古人臣 有身辨大事業者 有伏節死義者 而其人專出於名望之中 或在於草野之疏遠 鄉黨之賤棄矣(「仁祖實錄」卷46, 仁祖 23年 11月 辛未條(46;91b·35;250))

註 94) 領議政金堧 又上疏乞免曰 夫權奸之稱 固非一端 或樹立私黨 或陰謀陷人者 方可謂之權奸也(中略) 金堧既以草野而功臣於前 重馨又以草野而斥臣於後 臣之罪惡 前後彰著(「仁祖實錄」卷46, 仁祖 23年 12月 辛卯條)

註 95) 先是 上下書召金集 使輔導東宮 集辭以老病 上命待春和上來 至是 集又上疏力辭不至(「仁祖實錄」卷47, 仁祖 24年 2月 乙未條)

註 96) 註 93 과 同一

이처럼 金集이나 金尙憲이 仁祖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을 펴볼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에 金尙憲은 自派의 政治的 進出을 확보하기 爲한 수단으로서 侍講院의 制度改善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仁祖 24年(1646) 5월에 金尙憲은

臣이 듣건대 漢나라의 賈誼가 太子教育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진실로 근본을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世子가 冊封되었으니 모든 백성이 애타게 바라는 것은 太子의 教導입니다. (中略) 宮僚들 중에는 名流와 彥士가 있어서 각각 그 직책을 맡고 있기는 하나, 다시 行實이 方正하고 學問이 독실하며, 聲譽가 이미 드러난 사람들을 널리 구하여 科擧出身 여부에 관계없이 별도로 官職의 호칭을 정하고 資善의 지위에 출입하게 한다면 반드시 유익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⁹⁷⁾

라고 하여 侍講院에 科擧을 거치지 않은 人士를 기용할 수 있는 官職을 新設할 것을 요청하였다. 仁祖의 지시에 따라 備局이 이 문제를 논의하여 결정하기를, 대상자를 고르는 것은 吏曹에서 담당하고 官의 稱號는 宋의 故事에 따라서 堂上官은 贊善, 堂下官은

註 97) 左議政金尙憲 其疏曰(中略) 臣又聞漢臣賈誼 常以識時務自許 而拳拳竭論者在於輔翼太子 眞可謂知所本矣 即今元良得人 萬民延頸進德修業 此正其時 機會所關 豈有重於此者乎 見在宮僚必多名流彥士 各稱厥職 然更須博選廣求方正篤實已著之人 不限科目 別立官稱 俾得出入於資善之地 則必多所益也(「仁祖實錄」卷 47, 仁祖 24年 5月 丁卯條(47;45a~b·35;277))

翊善⁹⁸⁾, 參下官은 咨議로 하기로 하였다.⁹⁹⁾ 이리하여 侍講院에는 山林人士를 招致하기 위한 贊善·翊善·咨議職이 新設되었다. 侍講院에 세개의 官職이 一時에 新設된 것은 상당히 異例的인 일이었다.

즉, 朝鮮初期에는 1人만으로 侍講院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¹⁰⁰⁾ 仁祖初期에도 侍講院 官員의 증설요구가 却下된 前例에 비추어 볼때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으며,¹⁰¹⁾ 또한 科擧出身여부를 묻지 않으므로써 在野의 學者들에게 크게 文호를 개방한 셈이었다. 이처럼 侍講院 官職을 증설한 표면적인 이유는 世子教育의 內實을 기하기 위해서 經學에 조예가 깊은 자들을 侍講院에 기용하는데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淸西派의 在野人士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仁祖 24年(1646) 10월에 西人인 持平 李袞도

註 98) 「翊善」은 仁祖 26年 이후에는 「進善」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註 99) 答曰(中略) 仍下備局 備局以爲 博選一款 吏曹精擇可合之儒以備其任 而官稱則略倣宋朝故事 堂上則稱贊善 堂下則稱翊善 參下則稱咨議 入講之時則贊善序於輔德之上 翊善序於文學之次 咨議序於說書之下 上從之(「仁祖實錄」卷47, 仁祖 24年 5月 丁卯條(47;45a~b·35;277))

註 100) 德宗爲世子時 每日書筵 洪應獨對 睿宗爲世子時 李克堪獨對 若得文學博聞之士 雖一人亦足 況於五員乎(「成宗實錄」卷284, 成宗 24年 11月 癸卯條(284;15a~b·12;438))

註 101) 侍講院啓曰 本院實官兼官十員 而不能無疾病事故 今當祈雨親祭 世子當行亞獻禮 而宮官執事 無以備數 曾聞 祖宗朝 或有增置兼官之時 今宜加出 以備執事(中略) 右副賓客金尙憲 獨以爲增置官制 事體重大 倉卒差出 亦似未安 有故官員速令差出 以備執事 上命執事 上命從尙憲之言(「仁祖實錄」卷24, 仁祖 9年 5月 丙子條)

侍講院 官員은 비록 일시에 엄선되었지만 科擧를 통하여 벼슬길에 나선 자들은 보통 學問의 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山林에는 반드시 學問을 正統으로 닦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臣은 殿下께서 大臣이 銓官과 會同하여 널리 遺逸을 구하도록 명령할 것을 기대합니다. 약간이라도 이름이 있는 자들은 모두 기록하여 宣祖의 前例처럼 官職을 除授하는데 대비하도록 하십시오¹⁰²⁾

라고 하였다. 李裋도 역시 科擧出身보다 山林人士가 經學에 더욱 조예가 깊으므로 이들을 侍講院 官員에 重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科擧出身자들이 科文에만 치중하여 經學에 대한 소양이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기는 하지만, 科擧를 통해서 官吏가 된 功西派의 既成官僚들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¹⁰³⁾ 山林人士를 侍講院 官員에 임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논의된 것

註 102) 持平李裋曰春坊僚員 雖皆一時之選 由科目出仕者 素蔑學問之力 山林之下 必有藏修之士 臣願殿下 令大臣 會同銓官 博求遺逸之人 稍存一名者 率以列錄 一如宣廟朝六條俱備之規 以備除補 (「仁祖實錄」卷 47, 仁祖 24 年 10 月 乙酉條(47; 65b·35; 287))

註 103) 李成茂, <朱子學이 14.5 세기 韓國教育·科擧制度에 미친 影響> (성남; 「韓國史學」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3) pp.381~383. 科擧의 試驗方法으로써 講經과 製述의 어느쪽이 人材선발에 효과적인가 하는 論議는 朝鮮前期에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經學에 대한 소양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講經派가 대체로 우세하였으며, 1478 年(成宗 9 年)에는 明經科를 신설하여 講經만으로 取士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 결과 新進儒學者들이 政界에 더욱 많이 진출하여 世祖功臣이 주축이 되어 있던 勳舊派와 대립되는 세력인 士林派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은 仁祖 25年(1647) 4월에 이르러서였다. 吏曹는 「贊善」·「翊善」·「咨議」를 차출하되 輔養官의 前例에 따라서 兼職으로 임명하여 그들이 오래도록 그자리에 머물러 世子輔導의 임무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하였다.¹⁰⁴⁾ 이에 따라서 金集·宋時烈을 侍講院 官員에 임명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軍職을 제수했으나, 그들은 부임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仁祖 26年(1648) 10월에 金集을 贊善으로 權認를 咨議로 삼았다. 宋時烈과 權認는 모두 벼슬로써가 아니고 학문으로 저명한 자들인데,¹⁰⁵⁾ 이들에게는 특별히 驛馬를 타고 오도록 仁祖는 배려하였다.¹⁰⁶⁾ 이처럼 仁祖는 山林人士의 기용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거니와 그 대상은 주로 淸西派의 金尙憲이나 李景奭이 추천한 人士들이었다. 이로부터 山林人士를 좀더 광범위하게 기용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淸西派만을 기용하는 때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지만 仁祖 26年(1648) 10월에 이르러는 左議政 李景奭은, ‘三南에 어찌 人材가 없겠는가? 張顯光·金長生의 門生이나 子弟들은

註 104) 吏曹啓曰 世子贊善翊善咨議等官 今當差出 依輔養官例 以兼職 下批 使之久於其任 以專輔導之責似當 請金集宋時烈等 姑令先付 軍職 上從之(「仁祖實錄」卷 48, 仁祖 25年 4月 癸未條)

註 105) 以金集爲侍講院贊善 宋時烈爲進善 權認爲咨議 時烈認 皆不仕 以學問稱焉(「仁祖實錄」卷 49, 仁祖 26年 10月 甲辰條)

註 106) 下諭贊善金集 進善宋時烈 咨議權認等 令乘駟上來 自丙子亂後 朝廷以驛路凋弊 凡侍從之臣 皆不許乘駟 至是有此命 所以寵待之也(「仁祖實錄」卷 49, 仁祖 26年 10月 乙巳條)

모두 選用할 만한 자들이다.¹⁰⁷⁾ 라고 山林人士를 보다 적극적으로 기용할 뜻을 제기하였다. 吏曹는 “故臣 張顯光·金長生·朴知誠의 門生과 子弟 中에서 才行이 있는 자를 叙用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일차로 드러난 자들을 뽑아서 올리고, 그 이외에도 吏曹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들은 各道 監司로 하여금 각 지방의 公論에 따라서 자세히 이름을 적어서 보고한 후에 차례로 叙用하도록 하였다.¹⁰⁸⁾ 비록 각 지방에서 대상자를 골고루 추천하라고 했지만, 그 底意는 栗谷·牛溪의 門下를 기용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겠다. 이때 儒學者들의 親子弟 뿐만 아니라, 門生들까지도 벼슬에 特探되었다. 有功者의 子孫들이 蔭職을 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先生의 功으로 門生이 벼슬을 除授받는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인 것이다. 이는 政治的 地位 上昇의 중요한 요소로써 師弟關係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므로써 門閥위주의 사회로 전환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仁祖 末年에는 執權黨인 西人이 分裂되어 「功西」는 金自點을 領袖로 하는 「洛黨」과 元斗杓를 領袖로 하는 「原黨」으로 나뉘고, 「清西」는

註 107) 李景奭又曰 三南 豈無人材 如張顯光金長生門生子弟 皆可選用也(「仁祖實錄」卷 49, 仁祖 26 年 10 月 甲辰條)

註 108) 吏曹啓曰 故臣張顯光金長生朴知誠門生子姪孫中 有才行者 錄用事命下 故先以表著者 今當注擬 而此外亦必有本曹未及聞知者 令本道監司 詳採一鄉公議 指名啓聞後 次第收用宜當 請以此知會于慶尙忠淸兩道監司(「仁祖實錄」卷 49, 仁祖 26 年 12 月 己酉條)

金集·宋時烈·宋浚吉 등의 「山黨」과 金瑄·申晷 등의 「漢黨」으로 나뉘어 勢力을 다루고 있었다.¹⁰⁹⁾ 이때에 中央에서는 洛黨의 金自點이 領議政이 되어 外戚으로서 勢力을 떨쳤고 山林에는 連山の 學者 金集이 그 父 金長生의 學을 이어 특히 禮學의 泰斗로 일컬었으며, 그 父子의 門人중에서 宋時烈·宋浚吉등이 政界에서 크게 活動하고 있었다. 仁祖가 死亡하고 孝宗이 即位하면서 中央 政界의 勢力 판도에 變化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孝宗 即位年(1649) 5月에 仁祖의 諡號를 論議하는 자리에서 大臣들은 沙溪門人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主張을 하였다. 이에 따라서 金集·宋浚吉·宋時烈·權認·李惟泰등이 초치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清西派인 連山の 儒學者들이었다. 同年(1649) 6月에는 諡號 논의에 참여했던 沙溪門人들 중에서 宋時烈·宋浚吉등을 侍講院의 進善으로 任命하였다.¹¹¹⁾ 이들은 治人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修己의 重要성을 강조하는 儒敎 政治觀의 信奉者로서 金集은 君主의 一心이 天下를 다스리는 根本

註 109) 至上末年 又有原黨洛黨山黨漢黨之目 原黨主原平府院君元斗杓 洛黨主上洛府院君金自點 皆勳臣也 山黨主金集而宋浚吉宋時烈等輔之皆連山懷德山林中人 故謂之山黨漢黨主金瑄及申晷皆居漢上故謂之漢黨(李建昌;「黨議通略」(京城;光文會刊) p.18)

註 110) 大臣會賓廳啓曰(中略)同參議諡金尙憲 且參議金集及宋浚吉宋時烈權認李惟泰 俱是讀書之人 請諡道臣乘駟上來 上從之(「孝宗實錄」卷1, 孝宗 即位年 5月 壬申條(1;2b·35;365))

註 111) 宋時烈宋浚吉爲 侍講院進善 (「孝宗實錄」卷1, 孝宗 即位年 6月 甲辰條)

이라 하였고¹¹²⁾ 宋時烈은 學問을 배워서 마음을 바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¹¹³⁾ 淸西派 沙溪門人이 中央政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侍講院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것은 바로 이러한 性向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淸西派 沙溪門人이 대거 진출함으로써 기성세력인 金自點·元斗杓등의 功西派와의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沙溪門人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성세력을 비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孝宗 即位年(1649) 6월에 淸西派의 執義 金弘郁과 掌令 李楬등은

朝紳의 分黨은 이미 고질이 되었는데 수년내에 또한 分黨의 設이 있습니다. 勳臣은 대체로 사망하고 지금은 몇명에 불과한데 그들은 公義를 망각하고 私意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여 서로 시기를 일삼으므로 해서 국사의 처리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中略) 戶曹判書 元斗杓가 疏中에서 자신의 논의는 모두 국인이 共言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만약에 이 疏가 草野에서 나왔다면 公論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勳臣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가 지적하는 것은 妬婦의 말과 유사할 뿐입니다.

註 112) 金集上疏曰(中略)所謂 毀下之一心 爲天下之大本者 天下之萬事萬化 無一毫私邪之累 然後清明在躬 志氣如神 發號施令 悉循天則用人處事 動愜人心 內外大小 丕應徯志 而王道畢矣 (「孝宗實錄」卷 1, 孝宗 即位年 6月 辛亥條(1;18b·35;373))

註 113) 時烈已投疏而去矣 其疏曰(中略)明學以正心 修身以齊家(中略) 擇師傳以輔儲貳(「孝宗實錄」卷 1, 孝宗 即位年 7月 甲寅條(1;29a·35;379))

라고·元斗杓를 공격했다.¹¹⁴⁾ 계속해서 執義 金弘郁과 掌令 李哲 등은 “領議政 金自點은 元勳大臣으로써 仁祖의 총애를 받았으니, 마땅히 최선을 다하여 공에 보답해야 함에도 公義의 중대함을 망각하고 사리추구에만 전념한다”고 金自點도 공격하였다.¹¹⁵⁾ 이러한 공격으로 金自點은 領議政을 사직하고 그 뒤를 이어 李景奭이 領議政에 취임하였다. 계속해서 同年 9월에 清西派의 執義 宋浚吉은 李時萬·李以存·申冕·李之恒·李海昌등을 金自點의 당이고, 李行進 李時楷등은 元斗杓에 동조한 사람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¹¹⁶⁾ 이러한 비판에 대한 기성 세력의 반발도 거세었다.

同年 9월에 持平 李壽仁은

執義 宋浚吉은 林下 讀書人으로써 못 사람들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예리한 비판으로 일마다 문제를 삼는데 그 뜻은 가당하지만 法律을 적용할 때에 辭氣가 너무 예리하여 區別하는

註 114) 憲府執義 金弘郁 掌令 李哲 上劄論時弊 其略曰(中略) 朝紳分黨 已成難醫之疾 而數年以來 又有勳臣分黨之設 所謂勳臣 死亡略盡 今之存者 凡有幾人 而罔念公義 徒懷私意 未知罅隙起於何事 而各立門戶 轉相猜疑 至於當國事 亦多矛盾 竊恐終致乖亂之患 而有以壞殿下之國事也 伏聞戶曹判書元斗杓疏中所論 皆國人之所共言也 然若使此疏 出於草野 則可謂公矣 出於勳臣 則其所指斥 無亦近於妬婦之言乎(「孝宗實錄」卷1, 孝宗即位年 6月 癸卯條(1;14a·35;371))

註 115) 執義金弘郁 掌令李哲引避曰 領議政金自點 以元勳大臣 受知先朝寵幸無比 所當戮力盡忠以思報效 而罔念公義之重 全爲營私之計(「孝宗實錄」卷1, 孝宗 即位年 6月 甲辰條(1;14b·35;371))

註 116) 宋浚吉以執義 筵啓請竄 李時萬李以存申冕李之恒李海昌嚴鼎耆黃昇 以黨自點也又請罷 李行進李時楷 以黨斗杓也 俱以土類 附勳宰爲辭而人之多寡 罰之輕重異焉(李建昌;「黨議通略」(京城; 光文會刊) p. 18.)

일이 없지만 일체를 論罪한다.¹¹⁷⁾

라고 宋浚吉의 言辭가 너무 신랄함을 문제삼고 있다. 淸西派의 新進人士들은 기성세력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道德的 政治風土의 구현을 촉구하였다. 同年 10월에 領議政 李景奭은 “王이 즉위한 초기에는 하루에 세번씩 經筵을 열어서 治道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¹¹⁸⁾ 고 經筵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宋時烈도 “堯舜의 道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人欲과 天理의 사이에 있다.”¹¹⁹⁾ 고 理想政治의 실현을 위해서는 君主의 正心이 先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서 山林人士를 經筵에 참여 시킴으로써 支配者 教育의 內實을 기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던 것이다.¹²⁰⁾

그러나 淸西派 人士들의 修身論 일변도의 주장은 當面問題 해결을 위해서 制度의 改善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人士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孝宗 即位年(1649) 11월에 右議政 金堉은 “王의

註 117) 持平李壽仁引避曰 執義宋浚吉 以林下讀書之人 不避衆咻 銳意敢言 隨事糾劾其志則可尙 而擬律之際 辭氣大銳 不爲區別 一體論罪(「孝宗實錄」卷2, 孝宗 即位年 9月 己巳條)

註 118) 李景奭(中略)仍念新化之初 一日三接 講明治道 乃即今第一件事(「孝宗實錄」卷2, 孝宗 即位年 10月 庚寅條(2;11b·35;393))

註 119) 時烈曰(中略)自古人君 聞堯舜之道 無不以爲迂濶 而遭逢聖明 不以此言進 更待何時 堯舜之道無他 只在人欲天理之間 願殿下從事乎是 果天理也 則擴充之 果人欲也 則遏絕之 孜孜用力 則何患乎 不爲堯舜也(「孝宗實錄」卷2, 孝宗 即位年 10月 己丑條(2;11b·35;393))

註 120) 禮曹啓曰 以草野之臣 入侍經筵之意 議于大臣(「孝宗實錄」卷2, 孝宗 即位年 10月 丁未條(2;16b·35;395))

政治는 安民이 가장 중요하므로 安民을 위해서는 大同法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¹²¹⁾ 고 주장한데 대하여, 司僕寺正 宋時烈은 大同法의 실시로 防納의 폐단이 생겨서 士大夫들이 염치를 잃게 될 것이라¹²²⁾ 고 道德的 側面에서의 문제점을 들어서 大同法의 확대실시를 반대했던 것이다. 金集은 孝宗과의 대화에서 大同法의 시행을 節目間事로 君主의 正心을 治體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政治觀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先生(金堉)이 ‘大同法의 본 뜻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있다’고 했으니 어찌 아름답다고 아니 할 수 있겠는가 마는 治體가 아직 정립되지 아니했는데, 어찌 먼저 節目間事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¹²³⁾

라고 政治의 급선무가 修己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儒教的 理想政治의 실현을 위해서는 安民을 위한 制度改善에 注力해야 한다는 經世論과 君主의 存心 養性에 注力해야 한다는 修身論간의 논

註 121) 右議政金堉上劄曰 王者之政 莫先於安民 民安然後 國可得而安矣 古人有言天變之來 民怨招之也 民生苦於賦役 無樂生興事之心 則怨氣 鬱結象見于天 此必然之理也 人君遇災 而懼側身修省者 非有他道 只是行保民之政 使之安其生而已 大同之法 均役使民 實救時之良策 雖不能遍行於諸道 畿甸關東 旣行而得力 若又行之於兩湖 則安民益國之道 無大於此者 (「孝宗實錄」卷 2, 孝宗 即位年 11月 庚申條(2;20a·35;397))

註 122) 時烈曰 防納爲今日之大弊 士大夫多以此 喪失廉恥 (「孝宗實錄」卷 2, 孝宗 即位年 11月 己丑條)

註 123) 先生曰 大同之意 便民裕國 豈不美哉 但治體未立 豈可先行節目間事也 (金集; <慎獨齋先生全書> (서울; 「栗谷門徒石潭及門諸賢集」貳, 亞細亞文化社刊, 1982.9.30.) p.393.)

쟁은 결국 “漢黨”과 “山黨”이라는 清西內部的 分派를 가져왔던 것이다.¹²⁴⁾ 이러한 과정 속에서 山黨은 義理와 名分에 역점을 두고 君主의 正心을 중요시하는 道學政治를 표방함으로써 자신들의 政治的地位를 상승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治人을 위한 전제로서의 修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君主가 道統의 承繼者가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執義 宋浚吉은

예로부터 儒臣은 그 人君에게 道統의 責任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中略) 修己·治人の 實을 다하는 것을 傳道라고 하는데, 堯·舜·禹가 서로 傳한 것은 이와 같을 뿐인 것입니다. 이때문에 道統이 君과 宰相에 의해서 전해지면 道가 一時에 행하여 지고, 그 은택이 후세에 까지 미칩니다. 道統이 匹夫에 의해서 전해지면 道가 一時에 행해지지 아니하고 다만 後學에만 전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道統이 失傳되어 匹夫에게도 전해지지 아니하면 天下가 어두워져서 지향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¹²⁵⁾

라고 道統이 君主와 宰相에게 전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즉 君主가 聖王이 되고 宰相이 道統을 傳授할 때 王道政治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孝宗 1年(1650) 8月에 弼善

註 124) ①李建昌; 「黨議通略」. 仁祖朝至孝宗朝 參照

②姜周鎭; 「李朝黨爭史研究」 pp. 303~306.

註 125) 執義宋浚吉上疏曰(中略)自古儒臣 望其君以道統之責(中略) 盡修己治人之實者 謂之傳道 堯舜禹之相傳 只如此而已 是故 道統在於君相 則道行於一時 澤流於後世 道統在於匹夫 則道不行於一時 而只傳於後學 若道統失傳 并與匹夫而不作 則天下貿貿 莫知所從矣(「孝宗實錄」卷2, 孝宗 即位年 11月 辛未條)

宋時烈도

三代 이후는 습속이 비루해져서 道學을 迂濶하여 실행하기에는 절실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제책이라고 쓰는 것은 권모술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道學과 政事가 분리되어 道學은 無用한 것이 되고 말았으니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朱子는 일생동안 이를 개연히 여겨, 학문을 논할 때도 반드시 학문에 근본을 두었기 때문에 政治가 그 道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개 體와 用은 하나가 되고, 現像과 本體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帝王의 本統이요 聖學의 근원입니다.¹²⁶⁾

고 하였다. 결국 宋時烈도 道學과 政治가 긴밀하게 연결될 때만이 정치의 기강이 확립되어 理想政治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淸西의 山黨派 新進人士들은 時代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政治의 道學化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더우기 그들은 王權과 道統의 一體化를 강조함으로써 王權에 대한 儒敎的 統制機能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道學政治에 대한 관심은 必然的으로 世子教育에 대한 관심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支配者 教育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서

註126) 進善宋時烈上疏曰(中略)仍以朱子上孝宗封事論學之要二條 書進曰 臣竊惟三代以後 習俗卑陋 以道學爲迂濶 不切於施爲 而所以把持牽架者 不過權謀智力而已於是 道學政事 分爲二道 而道學爲無用之物 可勝歎哉 朱子一生 慨然於斯 論學不遺乎物 論治必本於學 故治得其道 蓋所謂體用一原 顯微無間者 此固帝王之本統 聖學之淵源也(「孝宗實錄」卷5, 孝宗 元年 8月 己酉條)

世子·世孫등을 위한 侍講院·講書院·衛從司등이 정비되었다.¹²⁷⁾ 또한 教育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련서적의 편찬이 매우 활발해졌다. 이때 새로이 편찬된 서적으로는 西人 趙贊의 「書筵備覽」¹²⁸⁾ 西人 李景奭의 「燕閑要覽」¹²⁹⁾ 西人 趙翼의 「困知錄」¹³⁰⁾, 西人 尹彬의 「古鑑錄」¹³¹⁾ 등이 있다. 이처럼 道學政治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侍講院 官員이 차지하는 政治的 비중도 높아졌다.

前章에서 언급한 「東宮日記」를 中心으로 이 시기의 侍講院 官員의 성격을 살펴보자. 仁祖~孝宗代를 통하여 侍講院의 專任官員은 他官職을 兼任하고 있는 官員과 비교할 때 그 移動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輔德·弼善·文學·司書·說書가 同期에 867회를 이동한데 비하여 兼輔德·兼弼善·兼文學·兼司書·兼說書는 281회 이동함으로써 侍講院의 專任官員은 他官職을 兼任하고 있는 官員과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이나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와같은 잦은 이동은 '世子가 나이가 어리므로 侍講院 官員을 자주 바꾸면 서로 친숙하지 않아서 講論에 불편하므로 자주 바꾸지 말라.'¹³²⁾ 는 侍講院의 기본 운영 방침과 상반되는 현상인 것이다.

註 127) 講書院 啓曰 本院及衛從司 乃是新設之司 其節目及處所 請令 禮曹定奪(「仁祖實錄」卷 49, 仁祖 26年 10月 壬辰條)

註 128) 「仁祖實錄」卷 48, 仁祖 25年 8月 丁亥條

註 129) 「仁祖實錄」卷 49, 仁祖 26年 7月 庚寅條

註 130) 「仁祖實錄」卷 50, 仁祖 27年 4月 己丑條

註 131) 「孝宗實錄」卷 5, 孝宗 元年 12月 己未條

註 132) 傳曰 世子年幼 侍講院官員 若數遞不相親 而不爲講論 其勿數 遞(「中宗實錄」卷 55, 中宗 20年 8月 庚子條)

이러한 현상은 經筵官의 경우처럼¹³³⁾ 侍講院 官職이 보다 나은 관직으로 승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專任 侍講院 官員의 잦은 이동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轉職 事例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東宮日記에 나타난 侍講院 官員의 이 시기 轉職狀況을 분석하면 다음의 <表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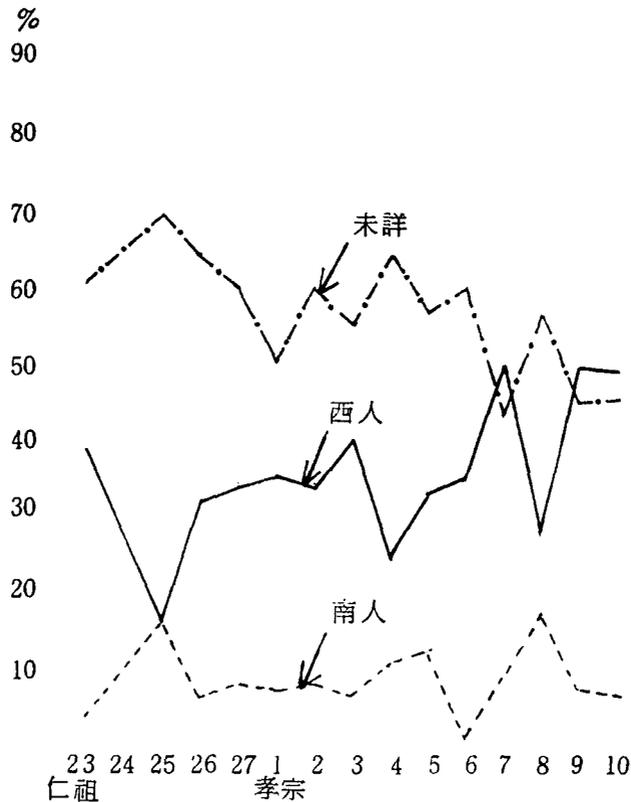
<表 5> 仁祖 23~孝宗 10年 侍講院 官員 移拜官職 分析表

관서	년도	仁祖		孝宗										누계	%			
		23	24	25	26	27	1	2	3	4	5	6	7			8	9	10
議政府									2			1 ^p		1			4	1.9
侍講院				1	1	1	1		1	4	1		1	2	2	1	16	7.8
承政院					1	1								1	2		5	2.4
司諫院		1		3	4	3	2	2	10	4	2	5	4	3	6	3	52	25.2
司憲府				6	5	7		6	9	6	5	2	5	2	4	4	61	29.6
弘文館		3		2	1	2				1	1		2	3	2	3	20	9.7
銓郎		2				2	1	2			1	2	2		2		14	6.8
成均館		1			2				1	1	3	1		1	2		12	5.8
藝文館				1		3							2	1			7	3.4
地方館		1							4		1		1	1			8	3.9
기타		1						1	1				1	2	1		7	3.4
계		9		13	14	19	4	12	26	20	12	9	21	14	21	12	206	100

註 133) 其選錄也 又必只擇閱閱華盛 以充其員 爲榮進之媒 其於能否始未嘗意到也 (李瀾, 「星湖僊說類選 附舊憂錄」(서울; 景文社 · 1981) 經筵條 pp. 951~952)

위표에 나타난 것처럼 侍講院 官員의 64.5%가 三司로 전직하였으며, 일부가 銓曹로 轉職하였다. 이는 결국 侍講院 官員의 2/3가 權力의 核心部로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侍講院 官員의 잦은 이동은 侍講院 官歷이 출세의 方便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孝宗 年間에는 畿胡 士林의 輿論을 주도하던 소위 忠南 五賢인 宋浚吉·宋時烈·尹宜舉·李惟泰·俞榮¹³⁴⁾ 등이 侍

<表 6> 仁祖 23年~孝宗 10年 侍講院 官員 黨色 分布圖



註 134) 姜周鎮, 「李朝黨爭史研究」 p. 131.

講院 官員을 歷任하므로써 中央政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이 시기의 侍講院 官員의 黨色도 다음의 <表6>에서 볼 수 있듯이 西人의 비중이 높았다. 즉, 昭顯世子 時期에는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했던 西人의 비율이 이 시기에 오면 40%로 10%가량 증가한 반면에 南人의 구성비율은 별다른 증가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侍講院 官職 중에서도 특히 下位職의 경우는 初入仕者가 上位職으로 승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侍講院 官員은 世子가 王으로 即位한 후에는 6品으로 승진하는 것이 항례¹³⁵⁾였으며, 그 중 說書는 근무 일수에 구애받지 않고 特進할 수도 있었으며,¹³⁶⁾ 이 때문에 아침에는 說書요, 저녁에는 正言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던 것이다.¹³⁷⁾ 이처럼 說書가 출세의 발판이 됨으로써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니, 分館前에는 說書로 추천되는 것을 금하는 法令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¹³⁸⁾ 어떻던 仁祖·孝宗朝의 西人들은 自派가 中央政界에 진출하는 방편으로 侍講院職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宋時烈은 侍講院職을 清西派의 정치적 지위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註 135) 又曰 春宮之官 世子即位後 陞出六品 曾有舊例 (「顯宗實錄」卷 2, 顯宗 元年 3 月 乙亥條)

註 136) 吏曹判書趙時俊啓曰 古例 說書即爲陞六 曾在先祖 有不得頻數陞六之教 (中略) 上曰 實說書之不帶翰林者 亦無勿許 出六之教 依卿言施行 (「正祖實錄」卷 18, 正祖 8 年 11 月 癸亥條)

註 137) 說書 不計朔出六 所謂朝說書 暮正言 (「增補文獻備考」下, p. 272.)

註 138) 分館前 不得通說書 (「新補受教輯錄」, 「朝鮮王朝法典集」3.) 吏典·東官職條 p. 267.

이처럼 侍講院職이 西人의 中央政界 진출의 발판으로 이용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南人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顯宗 即位年(1659) 6월에 南人인 鏡城判官 洪汝河는

관리를 추천하는 것은 吏曹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庶官이나 蔭職을 선발하는데 私情에 따라 하는 경우가 과반이 넘습니다. (中略) 지금 일찌기 없었던 일로써 年少한 官員들을 함부로 咨議에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老成人도 회피하고 받지 않는 것이 예의인데, 하루아침에 신진인사들에게 제수를 하니 보기에 안되었을 뿐 아니라, (본래의) 실효도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어진이를 대접하고 선비를 매우하여 염치를 배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¹³⁹⁾

라고 하였다. 洪汝河는¹³⁹⁾ 吏曹判書 宋時烈이 무자격자인 자파의 新進人士를 함부로 咨議에 임명하였다고 비난을 하였다. 이에 宋時烈은 吏曹判書를 사직하는 상소를 올렸으니,

지금 承政院에서 품달한 判官 洪汝河의 疏중에서 한 귀절이 정면으로 臣을 공격했다고 들었습니다. (中略) 이는 臣이 그대로 자인해야 할 것이요, 다른 유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본직을 교체

註 139) 鏡城判官洪汝河曰(中略) 當其注擬之際 吏部亦難徇意 至於庶官蔭職之選 徇私過半(中略) 今者 曾無嘗試之事 而年少蔭官 輒擬咨議 以平日老成 避而不居之禮 一朝加之於新進之士 無乃徒爲觀美 無益實效 而亦非所以優賢愛士 培養廉隅之道也(「顯宗實錄」卷1, 顯宗 即位年 6月 辛卯條(1;13a~b·36;211))

하야하여 주십시오! 140)

라 하였다. 결국 宋時烈은 顯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吏曹判書를 사직하게 되었다.

宋時烈이 자파를 咨議에 임명한 것은 科擧에 급제하지 않은 사람에게 臺諫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⁴¹⁾ 이처럼 侍講院職은 본래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출세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註 140) 吏曹判書宋時烈 上疏略曰(中略) 今者 竊聞政院啓稟 判官洪汝河疏言 其中一款 正斥臣身云 臣雖未見原疏 然其大意則可知矣 此臣夙夜所拱而俟者 脫然其伏 如鍼割病 無復遺撼矣 今遞本職以謝人言(「孝宗實錄」卷1, 顯宗 即位年 6月 癸巳條(1;15a·36;212))

註 141) 按非常之職 必待非常人設也 宋時烈之秉銓也 不問賢愚 惟黨與是崇是長 至以貧鄙無義 如宋基臣李翔等 濫擬咨議 旋登臺閣 駑駘錦幪 未足以喻其僭也 洪汝河之及於疏中者 非遇也 而曾無悔悟之意 當此問啓之曰 反以得罪公議 復先王之明等語 有若自咎者然 而其實忿慍之辭也。(「顯宗實錄」卷1, 顯宗 即位年11月 辛酉條(1;50a·36;229))

5. 結 語

이상에서 살펴 본 것 처럼 朝鮮王朝는 建國 初期부터 世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써 侍講院을 설치 운영하여왔다.

侍講院의 교육목표는 王道政治 실현의 주체자로써의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儒敎의 經傳과 史書, 性理書등을 中心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侍講院 교육은 世子가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때문에 교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朝鮮王朝의 侍講院은 世宗朝에 기본골격이 형성되었으며, 世祖朝에는 侍講院의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世子와 侍講院 官員사이에서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人間關係는 배제할 수가 없었다.

仁祖反正으로 집권한 西人政權은 光海君政權의 反倫理的 성향을 비판하고, 名分上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君主의 修身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世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었으며, 이는 道學政治라는 사상적 맥락의 일부분을 형성했던 것이다. 道學政治의 실현을 위해서 經學에 조예가 깊은 山林人士의 기용을 위한 새로운 관직의 신설이 논의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성숙하기를 기다려야만 하였다.

丙子胡亂을 겪는 과정에서 侍講院은 보다 깊이 政事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仁祖와 世子와의 갈등은 侍講院의 운영을 어렵게 하였다. 鳳林大君의 世子冊封을 전후하여 仁祖는 자신의 反正名分을 강화시

키기 위하여 淸西派를 기용하기로 하고, 侍講院에 贊善, 進善, 咨議 등을 신설하였다. 새로운 관직의 신설은 科擧를 거치지 않은 山林人士에게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侍講院을 중심으로 한 新進人士의 기용으로 인하여 功西派의 세력은 약화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淸西의 정치적 지위가 상승하게 되었다. 淸西는 道學政治의 실현은 君主의 正心으로 부터 출발한다는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켜 나갔다. 또한, 淸西派는 侍講院職을 경유함으로써 科擧及弟者에게만 개방되어 있던 三司나 銓曹로의 진출을 꾀했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주관적이며 도덕적인 修身論에서 찾으려고 하였으며, 이들의 得勢는 조선후기 사회의 관념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漢文抄錄

稽古專制君主社會其國家之興亡治亂以王權行使之如何爲決定矣是故王權之醇化人民之所以觀心事而若以儒教政治觀之則王道之施行自君王始矣如此之由誘導王權之正當使用支配者必有強要於儒教的教養標榜儒教立國焉朝鮮王朝自建國之初支配者教育制度設置運行焉而其制度之中經筵及侍講院特其一例然經筵以被教育者國王之善惡不同其運營或有不履行矣猶侍講院君臣之間觀心至大體系確立運營大抵侍講院之基本骨格世宗時成立及至於世祖時以其政治性向變動世子之人格形成以其侍講院官員人品高下影響及之云故慎重選擇又謂侍講院官員親近世子將來昇進不無有益故諸人皆爲選好而教育方法一日二三回施行專以經書及史學爲教材講義暗記而已政變以後執權西人政權以反正爲合理化道德的政治風土俱顯以爲國政基本指標又謂光海君反倫理的政權疎忽儒教教養時爲強調君主修身之必要性是以世子教育之關心高矣蓋君主修身之論根據於道德政治然道德政治實行不徒君主之存心養性爾經學之士參與政治之論自仁祖初期起矣但待社會雰圍氣之成熟矣胡亂以後反清意識高潮社會道德役割重要視一時形成社會雰圍氣當此時侍講院之機能亦有變矣即瀋陽之侍講院世子輔導業務至於本國政府諸般事世子裁量權之擴大對清觀之現實內和仁祖與世子之間疏遠矣是故侍講院制裁措處強化時爲侍講院之勤務條件惡化勢力者皆嫌侍講院差遣至仁祖二十三年鳳林大君世子册封再論侍講院教育強化此時畿湖士林輿論主導者金尙憲李景奭主請道德教育之必要性金集宋浚吉宋時烈主張經學之士侍講院起用而以上諸人招致侍講院新設贊善進善咨議是以在野人士不科學而進出中央政界之路開焉於是沙溪門人大學起用清西派之勢力擴大批判既成勢力強調君主之正心強化自身之政治的立場在於大同法之擴大施行可否金堉主張制度改善之際皆

謂政治道學化爲急先務又謂爲之社會問題解決道德振作先行以此個施行強調世子教育必要性侍講院中心自派影響力確保此等之得勢朝鮮後期政治之觀念的性向強化爲一個要因矣

參 考 文 獻

○ 基本資料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 1957). 經書(成大 大同文化研究院, 1969). 宋子大全(斯文學會, 1971). 栗谷全書(成大 大同文化研究院, 1968). 退溪全書(同, 1972). 石潭及門諸賢集(亞細亞文化社, 1981). 黨議通略(乙酉文化社, 1972). 黨爭史料集(旴辰社, 1981). 侍講院誌(奎章閣圖書, 907). 昭顯東宮日記(奎, 12821). 瀋陽日記(奎, 12825 의 1, 12825 의 2). 顯宗東宮日記(奎, 12829). 孝宗東宮日記(奎, 12828). 肅宗東宮日記(奎, 12831). 春坊達辭(奎, 9902) 東宮日記(奎, 12822, 12823). 列聖朝繼講冊子次第(藏書閣, 2-2781) 春坊故事(藏, 2-2042). 書筵備覽. 講官論. 大東野乘.

○ 單行本

姜周鎭, 「李朝黨爭史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71)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研究」(一潮閣, 1980)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韓國文化史大系 II, VI」(高大出版部, 1965~1970)
震檀學會編, 「韓國史」近世後期篇(乙酉文化社, 1965)
國史編纂委員會編「한국사」11, 12, 13(探求堂, 1977)
安 廓, 「朝鮮文明史」(朝鮮政治史)(瀝東書館, 서울, 1923)
朴鍾鴻, 「韓國思想史論考」(瑞文堂, 1977)
朴忠錫, 「韓國政治思想史」(三英社, 1982)

- 박충석, 유근호, 「조선조의 정치사상」(평화출판사, 1980)
- 李樹建, 「嶺南士林派의 形成」(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1979)
- 李佑成, 「韓國의 歷史像」(創作과 批評社, 1982)
- 姜萬吉, 「韓國近代史」(創作과 批評社, 1984)
- 金龍德, 「朝鮮後期思想史研究」(乙酉文化社, 1977)
- 金漢植, 「實學의 政治思想」(一志社, 1979)
- 裴宗鎬, 「韓國儒學史」(延大出版部, 1974)
- 尹絲淳, 「韓國儒學研究」(玄岩社, 1980)
- 崔昌圭, 「近代韓國政治思想史」(一潮閣, 1972)
- 韓國哲學會, 「韓國哲學研究」(東明社, 1978)
- 玄相允, 「朝鮮儒學史」(民衆書館, 1977)
- 黃元九, 「東亞細亞史研究」(一潮閣, 1976)
- 守本順一郎, 「東洋政治思想史研究」(東京:未來社, 1967)
- 蕭公權, 「中國政治思想史」(臺北, 1954)
- 國史編纂委員會, 「韓國教育史」資料 2 (探求堂, 1975)
- 金在得, 「朝鮮王朝教育行政史研究」(載東文化社, 1978)
- 李秉然, 「朝鮮前期畿湖士林派研究」(一潮閣, 1984)
- 丁淳睦, 「朝鮮書院教育制度研究」(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 論 文

- 李元浩, <朝鮮王朝의 世子教育> 「教育學研究」9. 2(10). 1971.
- 金鍾律, <朝鮮朝의 王世子教育制度에 관한 一研究> 高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1.6

-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大論文集』4. 1970
- 李元浩, <朝鮮王朝經筵의 教育史의 研究> 『教育學研究』12.2(8)
1974
- 權延雄, <The Royal Lecture of Early Yi Korea; Insitution, Ideology, and Politics.>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50 (December, 1979);
№.51 (June, 1980). 韓國研究院刊
-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 世宗·文宗을 中心으로> 『韓國史論』6. 1980. 12.
- 權延雄, <成宗朝의 經筵> 『韓國文化의 諸問諸』 國際文化財團刊.
1981. 3.
- , <世宗朝의 經筵과 儒學> 『世宗朝文化研究(I)』 韓國精神文化研究院刊. 1982. 12.
- 成樂熏, <韓國黨爭史> 『韓國文化史大系』Ⅱ.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1965.
- 李光麟, <世宗朝의 集賢殿> 『최현배선생환갑기념논문집』 1954.11.
- 崔承熙, <集賢殿研究> 『歷史學報』 32.33. 1966.1967.
- , <朝鮮初期言官에 관한 研究 - 集賢殿官의 言官化 -> 『韓國史論』1. 1973.
- , <弘文館의 成立經緯> 『韓國史研究』 5. 1970.
- 李成茂, <鮮初의 成均館研究> 『歷史學報』 35.36 합집. 1967.
- , <朱子學이 14.5 세기 韓國教育·科學制度에 미친 影響> 『韓國史學』4. 韓國精神文化研究院刊. 1983.
- 金龍德, <昭顯世子研究> 『史學研究』18. (史學研究會, 1964)
- 金鍾德, <李朝黨爭에 관한 考察> 『韓國學報』 24 (一志社, 1981)

- 宋贊植, <朝鮮士林政治의 權力構造> 「經濟史學」2. (經濟史學會, 1978)
- 李佑成, <李朝 儒教政治와 山林의 存在> 「東洋學 學術會議論文集」(成大, 1975)
- , <韓國儒教의 政治·社會的 機能> 「新東亞」(東亞日報社, 1974)
- 李泰鎮, <17世紀初의 政治趨勢와 仁祖反正>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士, 韓國軍事研究室編, 1977)
- , <15.16세기 新儒學定着의 社會經濟的 背景> 「奎章閣」5. 1981.
- 李樹建, <兩班社會의 構造와 그 展開> 「韓國學研究入門」(知識産業社, 1981)
- 洪淳昶, <丙子胡亂後의 國內外情勢> 「又軒 丁仲煥博士還曆記念論文集」, 1974
- 權五惇, <北伐大義 - 尤庵 宋時烈先生을 中心으로> 「斯文論叢」1輯. (斯文學會, 1973)
- 洪鍾泌, <三藩亂을 前後한 顯宗 肅宗 年間の 北伐論 - 특히 儒林과 尹鐸를 中心으로> 「史學研究」27號, (韓國史學會, 1977)
- 李秉然, <朝鮮中期文科及第者の 進出> 「東洋文化研究」3輯. (慶北大 東洋文化研究所, 1976)
- 金鍾圓, <初期 朝清關係에 대한 一考察 - 丙子胡亂時의 被虜人問題를 中心으로> 「歷史學報」77輯. (歷史學會)
- 崔韶子, <胡亂과 朝鮮의 對明清關係의 變遷 - 事大交隣의 問題를 中心으로> 「梨大史苑」12輯.

- , <清廷에서의 昭顯世子(1637~1647)> 「全海宗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1979.
- 柳正東, <斥和義理 - 清陰 金尙憲先生을 中心으로> 「斯文論叢」 7. (斯文學會, 1973)
- 金潤坤, <大同法の 施行을 둘러싼 贊反兩論과 그 背景> 「大同文化研究」 8. (成大, 大同文化研究院, 1971)
- , <李朝後期에 있어서의 成均館의 變遷과 改革> 「大同文化研究」 6, 7 輯 (成大, 大同文化研究院, 1970)
- 趙鍾業, <北伐과 春秋大義> 「百濟研究」 10 (忠南大, 百濟文化研究所 1979)
- 黃元九, <李朝禮學의 形成過程> 「東方學志」 10. 「延世大, 1963)
- 洪淳擘, <孝宗의 登極과 金自點의 罷免에 對한 小考 - 主로 그 原因에 關하여> 「文理大學報」 1-2. (서울大, 1953)
- 金斗憲, <退溪의 聖學十圖> 「東洋學」 5.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75)
- 尹南漢, <中宗代의 道學과 心學化 運動 - 陽明學의 東傳問題와 관련하여> 「史叢」 21.22 合輯 (高麗大, 1977)
- , <韓國近代文化의 儒教的 基礎> 「韓國史學」 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歷史研究室, 1980)

附錄 1. 侍講院 官員表〔仁祖 3 年(1625) ~ 孝宗 10 年(1659)〕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1	姜大遂(南)	張顯光	32·4	19	權 漶		28·5,9
2	姜碩期(西)	金長生	25·2,7,10 27·4	20	權 輯		55·11
3	姜輿載		48·6 49·4	21	權 護(南)		26·2
4	姜 瑜(西)		49·8	22	金慶餘(西)	金長生	33·5 34·1,6,10 35·1,4,8 45·3, 10
5	姜裕後		55·8 59·3'	23	金光燦(西)	金長生	25·2 26·7 34·1 36·9
6	姜 鎬		47·2 48·9 57· 12 58·12 59·3	24	金光炫		25·2 28·11 29· 4 30·10
7	高傳川		28·4 32·2,4,6	25	金南重		27·10 28·5 29· 4 31·4 32·2
8	郭聖龜		47·9	26	金德承		27·5 32·2,4 33·1 34·7,9
9	郭之欽		47·3 50·4 57·3	27	金萬均(西)	宋時烈	54·7 55·2 56·9 59·2
10	具鳳瑞		28·6 32·1	28	金萬基(西)	宋時烈	57·12 58·1,10
11	權 格		53·10,12 56·4, 10	29	金 槃(西)	宋翼弼	28·1,8 29·4 31·6 34·1 35·2
12	權 濤(南)	張顯光	28·2,2 29·4,5, 12 32·2	30	金 高		25·8
13	權大運(南)		52·4 53·6 56·8 57·4	31	金聲發		31·11
14	權 認		48·10 56·1 57· 10 58·2 59·3	32	金壽翼		33·8
15	權 愼		29·10	33	金壽恒(西)		51·12 53·1 54· 8,12 56·2,8
16	權 冷(西)		52·2 53·1,11	34	金壽興(西)		56·4,10,11
17	權任中		39·11 41·6				
18	權 堧(南)		51·6,7,9 52·3, 8 53·2,2,6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35	金世濂		30·9 31·9 36·5,6	53	金地粹(西)		26·2 27·8,10,11
36	金時讓		25·5,9 26·2	54	金 振		44·1 45·2
37	金始振		49·10 50·4	55	金 集(西)	金長生	47·1,4 48·10
38	金汝鈺		45·10	56	金 徽(西)	宋浚吉	51·7 52·11 55·6 56·12
39	金 埜		32·3 35·4 36·9	57	金弘郁(西)		36·9 50·1
40	金榮祖(南)		26·2 29·9	58	金孝建		32·4,6
41	金禹錫(西)	宋時烈 朴世采	54·6 58·4,8,12 59·1	59	金 霽		26·7 33·3 35·5
42	金元立		28·5,7 29·6 30·12 35·6	60	金泰基		45·5
43	金 增(西)		25·3,7 26·7,12 28·1 32·5,9	61	南老星		35·4 36·7 40·3 41·6 45·4 47·2
44	金應祖(南)	柳成龍	47·3,7 48·3 49·10 50·4	62	南九萬(西)	宋浚吉	57·9 58·10,12 59·3
45	金以鏡		49·1	63	南龍翼(西)	宋時烈	50·4 52·9
46	金益廉(西)	金 集	54·4 55·2 58·1	64	南重晦		47·1,9
47	金益熙(西)		35·6,12 36·6,10 45·2	65	盧亨夏(西)	崔 瀘	51·2
48	金宗一(南)	申之梯 鄭經世	37·11	66	睦來善(南)	許 穆	54·6,9 59·2,3'
49	金重鎰(西)		35·11 36·3	67	睦行善		45·10
50	金佐明(西)		51·4,9 52·1	68	閔光勳		31·5 32·2,5,7 35·5 36·10
51	金 澄(西)	宋浚吉	57·3	69	閔應恢		29·8
52	金知復		28·12	70	閔應亨(南)		26·2 33·3 35·8,8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71	閔應協		37·4 45·10	91	朴 漢(西)	金長生	25·4, 8 32·12 33·1, 6, 8 34·5
72	閔維重(西)	宋時烈 宋浚吉	53·1 56·9 59·2	92	卞時益		35·7
73	閔鼎重(西)	宋時烈	50·6	93	羅萬甲(西)		25·2 32·4, 10, 11
74	閔 點		53·8 56·1	94	徐元履		53·1
75	閔周冕		59·4	95	徐廷然		29·11 52·9
76	閔 熙(南)		57·1, 3, 5	96	徐祥履		33·5 36·9 44·1, 2 45·2 51·9, 10
77	朴吉應(南)	張顯光 李安訥	47·6·48·3, 7 51·12 52·2	97	徐必遠(西)	金 集 鄭弘溟	49·9 54·11 55·9
78	朴 遵		35·5 42·5	98	成汝寬		34·11 35·7 36·5
79	朴世堅(西)		56·4, 9, 12	99	成以性		31·11 33·10 35· 4, 12
80	朴世模(西)		54·12 55·4 56· 1, 7, 8	100	成楚容		40·2
81	朴世城(西)	金 集	53·10 54·2, 3 55·12 57·2	101	成楚客		40·2 54·1
82	朴守弘		35·9	102	成夏明		51·4, 9 53·8, 11 54·11 55·5, 9
83	朴承健		52·1	103	宋國澤(西)	金長生	30·2
84	朴承休		54·1, 10	104	宋基厚(西)	宋時烈 宋浚吉	59·3'
85	朴安梯		30·11 31·3, 5 36·5 49·10	105	宋夢錫		33·11 34·1, 12 35·2
86	朴安孝		32·5	106	宋時吉		35·10 36·11
87	朴宇弘		34·11	107	宋時烈(西)	金長生 金 集	47·4 48·10 49· 6, 8 50·6 51·8, 12 52·3 57·5 58·7 59·4
88	朴長遠(西)		45·10				
89	朴宗阜		34·12 35·7				
90	朴增輝		55·2, 12 58·9				

No	이름(黨色)	소속	在任年月	No	이름(黨色)	소속	在任年月
108	宋時詰(西)		57·7	126	沈東龜(西)		27·4, 10 28·8 29·2, 10 30·4
109	宋浚吉(西)	金集 金長生	49·6 52·5 56·1 57·8 58·1, 7 59·4	127	沈世鼎		49·7 52·1, 4, 9 53·1 54·2 55·7 56·3, 8, 10
110	宋昌		58·12	128	沈演		30·12 31·2, 7 32·1, 3, 10 32·11 33·1
111	宋希進(西)	金長生	35·8, 8 36·1	129	沈儒行(西)		47·6 48·1, 4 53·7 56·4, 7
112	辛啓榮		26·2, 4 30·10 39·4	130	沈梓(南)		57·2
113	申達道(南)	張顯光	27·5 28·5, 7, 8 29·8	131	沈齊		33·9 34·7
114	申敏一(西)	金長生	30·6 31·5 33·7, 9, 11 36·6	132	沈之遠		25·2, 2, 7 28·7 30·8 32·12 35·1, 6, 10
115	申恂		57·7	133	沈之漢(西)	鄭曄	30·10 34·8' 35·6 48·3, 6 49·2 52·8
116	申夙		48·3	134	沈澤		47·11 48·2
117	申瀾		39·3	135	沈梲		53·12 54·2, 10, 12
118	申翊全(西)	金尙憲	45·2	136	安時賢		45·3
119	慎天翊		33·10	137	安績		58·12
120	申最		49·3 51·9	138	安後說		53·8 54·4, 8 56·11 57·1
121	申混		51·5	139	安後稷		58·5
122	沈光洙(南)		49·11	140	梁曼容		36·4, 4 45·11 48·11
123	沈玖		50·8				
124	沈盧		51·1 52·2				
125	沈大孚(南)	鄭速	44·1, 3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141	嚴鼎考		35·12 36·8 45·12 47·2,8 48·11	158	元萬石(西)		51·3,9 53·1,7 55·6 56·2,7,9,10
142	嚴 惺		25·2,2,7 27·4 10	159	柳 楮		45·2 57·4
143	呂閔齊		54·4	160	柳景緝		29·8 30·3 35·8 43·5
144	呂聖齊(西)		54·11	161	柳景昌		42·5 45·3 47·10 49·2
145	呂爾徵(西)	金長生	26·3,9 27·5,10 29·4',6	162	俞 榮(西)	金 集	36·9,10 58·9, 10,12
146	呂爾載(南)	張顯光	40·3	163	柳道三		50·7 51·1 52·1, 6 54·9
147	吳 端(南)		27·7,9,10 29·4,36·2	164	俞命胤(西)	宋時烈	58·9 59·3
148	吳達升		26·8 27·12 28·9 29·1,4 32·9	165	俞伯會		25·2,2,3
149	吳斗寅(西)		52·4,11 53·2 55·4	166	俞省會		31·11,34·8
150	吳 翺		45·4	167	俞守會		36·7,10
151	吳始壽(南)		57·7	168	柳 滄		40·3 47·1,4,6
152	吳 燾		25·7 26·7 29·4 31·11	169	柳 穎		29·9,10 30·6, 10 31·10 32·3
153	吳挺垣		52·4,11 53·2 55·4	170	柳俊昌		33·9 49·2 54·10 56·10
154	吳挺緯(南)		47·4 48·10 50·7 51·1 56·9	171	柳 楫	金長生	50·1
155	吳挺一(南)		47·2,6,10	172	柳昌文		32·4
156	吳 竣(西)	金長生	25·3	173	俞 瑒		53·7',12 54·2
157	吳 翹	張 維	51·4	174	俞 楳		35·12 36·4 40·3
				175	俞 梲		36·5 45·10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176	尹 絳(南)		27·5 28·4	196	尹孝永		29·12 32·3,7 33·6
177	尹 璵		51·1 52·4	197	尹 鑄(南)		56·1
178	尹 榮		31·5 33·5 35· 8	198	李 表		56·11 58·11
179	尹 坵		29·8 34·11 35· 2 36·8	199	李 檜		37·2
180	尹鳴彥		34·4	200	李光載		48·12
181	尹鳴殷(西)	金長生	31·7,7 33·4	201	李 垞		27·6,7 28·2,8, 10 31·5,7 34·8' 35·3
182	尹文學(西)	金 集	35·8	202	李景仁		30·9 31·5,10 32·5
183	尹飛卿(西)		58·10	203	李慶相		42·6
184	尹 墀		26·3 27·8 28·1 11	204	李慶億(西)		50·1 54·7 57·5
185	尹宣學(西)	金 集	52·12 57·6,8	205	李敬輿		25·2,6,9 26·1, 6,8,9
186	尹善道(南)		33·5	206	李景義		26·1,11 28·2 32·12
187	尹順之(西)	尹根壽	25·2	207	李景曾(西)	權 輿	25·9 26·11 27· 4,7 29·10 31·7 33·6,7
188	尹 焜(西)	成 渾	36·11	208	李景憲		26·8 27·5
189	尹 澄(西)	宋時烈	54·3	209	李慶徽(西)	金 集	57·6 58·1 59·1, 3
190	尹知敬		26·5,12	210	李起淳		48·8
191	尹 集		32·4 33·1,4 36·6	211	李基祚(西)		27·4,11
192	尹 鏞(南)		45·3,3 54·10				
193	尹衡彥		25·11 31·4				
194	尹 煌(西)	成 渾	26·11 28·8 30· 4				
195	尹孝立		27·7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212	李端相(西)		49·10 51·7 52·10 57·2 58·1,12 59·2	231	李 哲		45·10 50·2 52·1 53·7 56·2,4
213	李德洙(西)	金長生	30·4,7	232	李省身(西)	金長生	29·6 30·10
214	李東溟		55·7	233	李性達		25·7
215	李 曼(西)		33·3,6	234	李性源(西)	金長生	27·4
216	李晚榮		50·8 54·1 59·2	235	李性恒		50·6 57·6,7
217	李萬雄		59·4	236	李昭漢(西)		29·7
218	李 秣		44·1	237	李壽仁		49·9
219	李冕夏		44·1 45·10	238	李 翮(西)	宋時烈	57·9
220	李命雄		27·6 33·6 36·11 37·2 51·9	239	李時萬		47·8
221	李溟翼		57·10	240	李時楛		31·6 32·11 45·10 47·1
222	李 瑩		55·10 57·6,7	241	李時術		56·1,12 57·9 58·2,4,10 55·7
223	李敏叙(西)	宋時烈	54·8	242	李時稷(西)	曹好益 金長生	32·3
224	李士祥		28·3	243	李時楷		32·5 33·3 37·2 45·10 31·7
225	李 翔(西)	金 集 宋時烈	58·12	244	李 植(西)		25·2
226	李尙伋		35·8	245	李如璜		25·3
227	李尙逸(西)	金 集 宋時烈	50·8 54·5	246	李延年		51·11 52·7
228	李尙眞(西)	金 集	52·1,4 53·12 54·2	247	李元禎(南)		56·2
229	李尙質(西)	權 輶	50·12	248	李元鎮		31·8 32·1,2 33·10 40·12
230	李尙馨(西)	金長生	29·1,6 30·7 40·3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249	李惟達		30·10,12 31·8 32·2,10	264	李俊者	洪 震	45·12 53·1,12 57·9 58·7 59·3'
250	李惟泰(西)	金 集 金長生	47·4 59·1	265	李 曾		53·5 56·2 57· 11
251	李潤雨(南)	鄭 述	25·2 27·5,11	266	李枝茂		50·6 55·8
252	李殷相(西)	金尙憲	52·6 53·2,10 54·5,8 55·5 56·4,7 57·4	267	李之選		53·12
253	李慶著		51·3	268	李之翼(西)		54·5
254	李以存		45·20 47·1,2	269	李 衫		43·4 52·8 54· 10 55·2 56·3
255	李 翊(西)	宋時烈	58·2 59·2	270	李揚然		34·8'
256	李一相(西)		32·7 47·10	271	李天基		40·3 51·8 53· 4
257	李 梓		45·2 47·1 48·11 49·4 50·11 54·7, 12 55·7,8 56· 1,6,9,11,12	272	李泰淵(西)	金 集	45·2,10 56,7, 7,9
258	李齊衡		49·3 53·10 54· 11 55·10	273	李弘淵(西)	金 集 金長生	48·1,5 49·11 51·9
259	李 程		51·11 54·2,3 58·7 59·3',4	274	李 杭	朴 英	56·5
260	李廷夔		55·7 57·1,7,8, 10,11	275	李行健		36·9
261	李正英		43·4 45·3 52·2 53·8,11 57·4,6	276	李行道		57·2,11
262	李 稠		36·9	277	李行遇		36·9
263	李 竣(南)	柳成龍	25·2,2,4,5,6 26·2	278	李海昌(西)		48·1
				279	李行進		48·6
				280	李行遠		30·9,12 48·2

№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281	李 迥		52·2,5,7 55·2,4	299	鄭繼青(西)	金長生	33·3 57·8
282	李馨遠		25·3 28·1	300	鄭基豐		50·6 53·8,9 54·2 57·8,12
283	李 栻		28·10	301	鄭道應(南)		49·6 57·6 58·11
284	李 匡(西)	金長生	48·9 51·6 55·8 56·4 59·3	302	鄭斗卿	李恒福	32·4
285	李後山		51·4	303	鄭雷卿		37·4
286	李厚源(西)	金長生	36·11	304	鄭萬和		53·2,6 57·11 59·4
287	李休徵		53·8	305	鄭百昌		25·2,2,3,8 26·1
288	任 統		32·11 33·4,10 35·10 36·1,3,4	306	鄭百亨		27·11 28·2,5 29·4,9 30·1 33·11
289	林 壇		36·5,6	307	鄭 哲		57·2,3,12 58·4,11
290	林聖翊		47·1 48·2	308	鄭世矩		25·3
291	林 棟		32·8,9,12	309	鄭世輔		48·10 49·7
292	任義伯(西)	金長生	50·10 52·5	310	鄭 植(西)		56·12 57·9
293	林 疇(西)	成 渾	36·10 40·3 47·2,8 48·4	311	丁彦壁		47·1,12 48·3
294	任 重		47·7,10 48·3,4,8 51·8	312	丁彦聖		51·6
295	任翰伯		44·1 45·2	313	丁彦璦		47·1
296	任孝達		28·7 35·7,8	314	丁彦璜		45·2
297	張應一		45·11 49·9,10 50·1,6 51·10 52·1	315	鄭 攸		51·3
298	張次周(西)	金長生	45·2	316	鄭 鎰		56·6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317	鄭 楹		51·11 52·5 53·3 56·6, 11 57·6, 12	333	趙邦直(西)	成 渾	27·11 28·3, 8 29·11
318	鄭麟卿		50·11 54·4	334	趙復陽(西)	金尙憲	53·5 54·11 55·2 57·8 58·4
319	鄭宗溟(西)	李 珥 成 渾	25·9	335	趙 贊		28·1, 5 31·7 36·9 47·5, 8, 12 49·9
320	鄭之翊		30·9	336	趙翹基		49·4
321	鄭知和(西)		36·3 39·3 44·1, 2 49·11	337	趙錫胤(西)	金 集 金尙憲	29·3 33·4
322	鄭昌育		47·11	338	趙 淶(西)	金 集	52·1
323	鄭維城(西)		27·9 33·6, 9, 10, 10 34·2	339	趙壽益		34·9, 12 36·6
324	鄭致和(西)		36·3 40·3	340	趙 淪		52·11
325	鄭 沈		29·1	341	趙胤錫(西)	金 集	57·1, 6 59·3
326	鄭太和(西)		29·6 32·9 34·9, 12 35·3, 4, 12 36·6, 9	342	趙全素		40·11
327	鄭弘溟(西)	金長生	25·10 26·2 27·3 31·5 32·1	343	趙廷虎		26·9 31·5
328	鄭 綱(南)	尹根壽	30·12 34·8, 35·6, 8, 11 36·2, 5, 6	344	趙重呂		35·7 36·2 44·2
329	趙啓遠	李恒福	31·1 36·6 41·4	345	趙漢英(西)	金長生	45·10 50·3 51·11 52·7, 8, 9 53·2, 6, 7
330	趙公淑		30·2 31·11	346	趙 珩(西)		45·2 47·11 48·3 50·9 51·7
331	趙龜錫(西)	鄭弘溟	48·12 49·6 50·8 58·4 59·3	347	趙 洞		27·1 35·8
332	曹文秀		32·12 37·12	348	蔡裕後		32·2, 12 36·5
				349	蔡忠元		54·4, 11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No	이름(黨色)	스승	在任年月
350	崔 苻		25·2 28·2,5 29·2 33·1,3	364	洪 鎰		50·10
351	崔 蘊(西)		49·10,12 53·8	365	洪汝河(南)		33·3 57·8
352	崔有淵		29·8	366	洪 據		33·7
353	崔 逸(西)	張 維	47·7 48·7 49· 2,9 54·12	367	洪宇遠(南)		47·3
354	崔惠吉(西)		26·1 29·7 30·9 32·5,6	368	洪 歲(西)		52·2,5,9 55·9
355	崔後胤		47·12	369	洪柱一		34·2 35·8
356	河 潛		49·6	370	洪重普		47·1 49·11 50·1
357	韓 楨		58·5,9	371	洪處亮		47·4 49·11 54·1
358	韓必遠(西)		26·11 27·4,6, 9,10 30·12 31· 9	372	洪處大		52·3 53·10
359	韓興一(西)		31·5,10 34·3,9 35·2,12 36·2,4	373	洪處尹		50·10 53·1 55· 11 58·12 59·3
360	許 啓		32·8 33·2	374	洪處厚		30·5 33·1,7 52·11
361	許 悅		49·4	375	黃胤後		33·10 34·5,8, 10
362	洪命一(西)		34·5,12 36·3,8 44·1	376	黃一皓(西)	金長生	36·6,10
363	洪命夏(西)		45·10 49·10 51·9	377	黃僑耆		47·4 48·4,7 58·12

[備考]

1. 위 표의 在任年月은 다음 요령으로 표기하였다. 즉 1652年 2月과 1652年 閏10月の 경우 52·2,10'로 기록하였다.
2. 위 표의 모든 기록은 「昭顯東宮日記」, 「瀋陽日記」, 「孝宗東宮日記」, 「顯宗東宮日記」에서 조사 정리한 것이다.